

# 문화 서울

2025 11 VOL. 225

문화서울



서울어템페스타 포스트 시즌

'공연예술, 서울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연극·무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10편을 선보이는 서울어템페스타가 40일에 걸친 공식 시즌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포스트 시즌을 이어간다. 동아창작극약제(11월 13~14일), 서울아리랑축제(15~16일), 서울오페라페스티벌(18~22일), 웃웃-하다 페스티벌(19~22일), 읍/신페스티벌(20~30일), 서울무용제(21일~12월 7일) 등이며, 자세한 축제 정보는 서울어템페스타 누리집(sfac.or.kr/seoulautumnfes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마스터피스 토크 x 서울무용센터 <춤이 말하길래>

서울무용센터가 전통예술 분야 원로 무용가가 오랜 세월 예술로 자신의 삶을 빚어온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춤이 말하길래>를 선보인다. 첫 번째 '몸이 남긴 말'에서는 춤으로 삶의 감정을 풀어온 무용가 한순서, 두 번째 '다르게 새긴 말'에서는 모두가 함께 춤추는 세상을 꿈꾸는 인남순이 춤꾼으로 평생 올곧이 다져온 전승의 길과 예술 경험을 시민과 나눈다. 11월 5일 오후 2시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서울무용창작센터) | 02.304.9100



4



퀴드초이스-예술창작공간 콤마앤드 (시물라시옹)

예술창작공간 콤마앤드가 시 시대의 심리적 풍경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시물라시옹>(연출 이태린·작 최양현)을 선보인다. 무대는 사고로 아내를 잃은 선욱이 데이터 러닝 가상현실 재현 프로그램 '시물라시옹'을 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애도의 과정, 상실과 극복, 이와 동시에 기술 발전 속 변하지 않는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한다.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 대학로극장 퀴드 1577.0369

공예품: 2025. 10. 28(화) - 11. 9(일) 서울공예박물관 전시동

신당창작아카데미 기획전시 <공예품:경> 신당창작아카데미 16기 입주작가 35명이 참여하는 기획전시 <공예품:경>이 열린다. '신진 작가들의 공예바람이 시대의 풍경이 되는 자리'를 주제로 작가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1월 9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동1층 02.2232.8832

2

3

서울연극센터 프로젝트 가을 '리플레이Re: Play' 11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낭독공연이 펼쳐진다. 서울연극센터 라운지를 무대로 이강백을 비롯해 한국 연극사에 기록된 주요한 희곡 작가의 작품을 다루며, 낭독공연에 이어 원로예술인의 삶과 현실을 다루는 오픈 토크쇼를 선보인다.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 서울연극센터1층 라운지 | 02.743.9336

2024. 11.14-29. 리플레이Re: Play 목, 금, 토, 일 19:00 공연

2025 서리플 K-스트링 페어 국내 현악기 제작 장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행사가 열린다. 서초음악문화지구와 서초문화재단이 2023년부터 함께하는 행사로, 공연과 현악기 강연회 및 시연회, 전시로 구성된다. 한국·이탈리아·영국에서 활동하는 제작자 7명이 만든 바이올린·비올라·첼로 등 악기를 전시하며, 대니 구와 박상민 콰르텟, 쥘베니스 콰르텟 등이 연주를 들려준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 로데아트센터 | 02.3474.3921

6

초혼제 기왕지사 인연 맺은 이 땅이오니

리:바운드 축제 <초혼제> 지역의 우수 창작 공연을 발굴하는 리:바운드 축제 선정작 <초혼제>가 11월 9일 오후 3시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에서 열린다. 전통예술에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지고 연회·뮤지컬처럼 보는 재미를 더한 독창적인 공연이다. 티켓은 전석 1만 원이며, 강북구민은 5천 원에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강북문화재단 누리집(gb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8 MUSICAL. 산타와 빈앙말**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  
〈러브 액츄얼리〉의 감독 리차드 커티스가 전 세계 가족들에게 선사하는 또 하나의 가슴 따뜻한 선물  
2025. 11. 22 - 12. 25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가족뮤지컬 〈산타와 빈앙말〉**  
누적 관객 수 40만 명을 자랑하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산타와 빈앙말〉이 연말을 맞아 광진구를 찾아온다. 선물을 기다리는 쌍둥이 자매와 산타 할아버지의 특별한 하루를 그린 가족뮤지컬로, 유쾌한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 속에서 진짜 선물의 의미를 짚어보자.  
11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 02.2049.4700



9

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술, 또 다른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이 펼쳐진다. 서울의 다채로움을 바탕으로 예술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 그리고 삶을 이어주는 일상 속 예술 체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보자.

**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초연 10주년을 맞이한, 믿고 보는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대극장 무대에서 재공연한다. 작품은 억울하게 멸족당한 조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고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영의 서사를 따라간다. 기군상의 원작을 오수경이 번역하고, 고선웅이 각색·연출했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1644.2003



10

**〈봉쥬르, 득퇴흐 크노크!〉**  
금나래아트홀 상주단체 '창작하는 타루'가 100년간 사랑받아온 프랑스 인기 희곡을 새롭게 창작해 선보인다. 건강염려증과 같은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의학의 권위, 상술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로, 최근 〈삼매경〉을 비롯한 작품에서 독보적인 연출을 선보여온 이철희 연출이 함께한다.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 금나래아트홀 | 070.4172.4084

**〈김창열〉**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김창열의 2021년 작고 이후 첫 대규모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창열은 1950년대 앵포르멜 운동을 주도하며 서구 현대미술의 어법을 한국적 정서와 접목하고, 뉴욕과 파리를 거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을 구축했다. 상흔-현상-물방울-회귀로 이어지는 네 개 장으로 구성된 전시는 작가의 초기작을 시작으로 창작 여정을 세밀하게 조명하며, 물방울 회화의 전개 과정을 탐색한다. 또한 미공개 자료와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과 창작 과정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다.  
12월 21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13

**연극 〈아끼니꾸 드래곤: 용길이네 곱창집〉**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재일교포 극작가 겸 연출가 정의신의 대표작 〈아끼니꾸 드래곤〉이 돌아온다. 예술의전당과 일본 신국립극장이 공동 제작한 프로젝트로, 10월 7일 도쿄에서 먼저 막을 올렸다. 연출가가 자신의 삶과 시대적 경험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작품은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의 삶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는다. 2008년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초연한 뒤 14년 만에 재공연하는 뜻깊은 자리로, 한국과 일본 초연 멤버들이 힘을 맞춘다.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1668.1352

**11**

**12**

포토 디스커버리 프로젝트 <스토리지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미술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관람객의 전시 경험을 확장하는 '포토 디스커버리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비전시 공간을 무대 삼아 동시대 작가와 신진 기획자가 참여하며, 화이트큐브에서는 선보이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실험하는 것. 미술관 곳곳을 거닐며 정지현·박상민, 오주영, 정멜멜 작가가 새롭게 해석해 내놓은 작품을 만나보자.

11월 23일까지 |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 02.2124.7600

14

화면 정비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은 40초 후 활성화 됩니다. The button will be activated in 40 seconds after the screen is reset.

포토 디스커버리 프로젝트 <스토리지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 전시 전경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파벨 하스 콰르텟 리사이틀

예술의전당은 '월드스타 시리즈'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실내악 앙상블 파벨 하스 콰르텟의 무대를 준비했다. 체코를 대표하는 현악 4중주단으로, 그라모폰 어워드에서 다섯 차례 수상하며 그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 2002년 창단한 이래 2015년 첫 내한 공연을 연 이들은 국내 관객으로부터 뛰어난 기교와 표현력, 독창적인 해석으로 인상을 남겼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실내악곡을 들려준다. 특히 마지막 곡으로 슈베르트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를 준비했다.

11월 11일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668.1352



©Petra Hajska



서울시오페라단 <아이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합창·오케스트라·무용이 아우러져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오페라 <아이다>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려진다. 서울시오페라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준비한 작품으로, 200여 명의 출연진이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할 계획. 아이다 역에 소프라노 임세경·조선형, 라다메스 역으로 테너 신상근·국윤중, 암네리스 역에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김세린, 아모니스로 역에 바리톤 유동직·양준모가 출연한다. 지난해 <운명의 힘>으로 호평을 받은 이희수가 연출을 맡았다.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02.399.1000

15 16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SCENE

세계지도 위 '서울'이라는 나침반 서울문화재단 국제 교류 21년

10

히스토리 2004-2025 세계와 호흡해온 서울문화재단의 순간들

16

투어 창작에서 확산까지 서울예술상 수상작의 첫 유럽 순회공연

18

포럼 서울국제예술포럼, 세계가 함께 말하는 예술과 도시의 미래

24

칼럼 서울문화재단, 교류를 넘어 세계에 길을 내야

28

예술가의 진심 류세일, 배우는 천생 직업

34

예술인 아카이브 지오메트릭스터디

36

예술인 아카이브 정현준

38

페이퍼로그 시실안전1팀 이우형 편하고 안전하게, 다같이

40

인사이드 찰나의 감각을 영원한 예술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기획전

42

인사이드 일상에 예술을 조금 더 가까이 2025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44

서울 로컬 리포트 서울의 동쪽, 서울의 맨앞에서 김영호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48

트렌드 시가 장악한 시대, 청소년을 위한 예술

50

해외는 지금 'K-컬처'의 확장과 한국미술의 국제화

COLUMN

54

명곡의 뒤안길 브람스의 첫 교향곡에 담긴 애국적 선율

56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줍는다 잡으로 시작되는 말-반짝이는 잡동사니들

58

멈추면 보이는 것들 실렘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우리 집

60

국악 칼럼이라기엔 썩스럽지만 저 레고 얼마예요?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COVER STORY

서울예술상 수상작 유럽 순회 공연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을 받은 허운정의 <악가악무-절정>이 10월 유럽 3개국을 순회하며 현지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서울에서 출발한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울림을 만들어냈는지,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특집에서 확인해보시기를.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중 편집총괄 이주영 기획 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E. monthly@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5년 11월 3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 세계지도 위 '서울'이라는 나침반 서울문화재단 국제 교류 21년

2004년 창립 이래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로 세계 도시를 잇고  
그 풍경을 변화시켜왔다. 올해 서울국제예술포럼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을 앞둔 재단의 국제 교류 궤적을 짚어봤다.



# 2004—2025 세계와 호흡해온 서울문화재단의 순간들

20년 넘는 시간 서울문화재단은 걸음마다 국제 교류의 이정표를 세워왔다. 예술로 서울과 세계를 잇고 변화를 이룬 그 길을 짚어본다.

서울문화재단이 출범한 2004년, 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이 세계와 만나는 길'을 그리기 시작했다. 축제 네트워킹 세미나로 시작한 국제 교류는 작은 만남과 실험이 쌓이며 예술가의 교류로, 도시의 협력으로, 그리고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로 확장됐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문화재단은 한 걸음 한 걸음, 서울만의 국제 교류 이정표를 세워왔다. 그 길 위에서 예술은 '로컬'의 언어에서 세계 도시를 연결하는 언어가 됐고, 서울은 이제 세계 속에서 '예술로 대화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그 길을 따라 서울의 예술이 세계를 잇고 도시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되짚는다.

## 2004—2008 기반 구축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연예술 국제 교류기초를 마련하다 서울문화재단의 첫 국제 교류는 축제와 함께 시작됐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해 서울 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Seoul International Networking Seminar for the Festival Organizers, SINSFO)를 개최, 문화 교류의 발판을 다졌다. 세미나를 통해 공연예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축제를 통한 도시 브랜드 확산 정책을



↑↑ 서울 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2005)  
↑ LCE와 협업으로 진행된 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2008)  
← 해외 팀의 참여가 활발했던 서울거리예술축제 현장(2025)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2004년 1회 세미나에서 진행한 쇼케이스는 2005년 서울아트마켓(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PAMS) 창설로 이어졌으며, 2회 세미나는 제1회 서울아트마켓과 공동 주관했다. 재단은 SINSFO 개최를 통해 인연을 맺은 국제공연예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ISPA)·아시아공연예술축제연합(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 AAPAF) 등 국제 문화기구의 회원 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해외 기관이나 단체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2006년에는 링컨센터 예술교육원(Lincoln Center Education, LCE)과 협력해 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문화예술교육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예술교육 패러다임을 도입하고자 국제 교류를 통한 다양한 예술교육 방법론을 국내에 소개했다. 또한 베이징·이스탄불 등 서울시 자매결연도시 대학생과 유학생 대상 서울의 문화예술 창작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외 대학생 초청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2005~2006)도 진행했다.

당시 재단은 예술교육, 축제, 창작공간 등 각 사업 분야에서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서울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쌓았다. 특히 2007년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시작으로 금천예술공장·신당창작아카데미 등에 해외 예술가를 초청했다. 이 시기 국제 교류는 '축제의 도시'에서 '교류의 도시'로 진화한 시기이자 서울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관문으로서 첫 문을 연, 도시 개방기였다.



## 2009-2013 확장 전문화기

창작공간의 거점화를 통해 국제 교류 전문성을 강화하다  
2009년 들어 재단은 교류의 폭을 넓히며 전문화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축제형 교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예술교육, 창작공간, 정책 교류로 확장된 시기다.

### ① "미적체험 교육에서 서울형 예술교육으로"

2009년 링컨센터 예술교육원 Lincoln Center Education, LCE과 MOU를 체결하며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미적체험 aesthetic education' 철학을 바탕으로 한 협력은 예술을 '지식이 아닌 삶의 감각'으로 바라보는 교육 접근법을 제시했다. 2010년 이후 재단은 링컨센터 초청 심포지엄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서울형 예술교육의 기틀을 다졌다. 그 첫 결실로 2010년 5월,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Seoul Educators Workshop with LCE, SEW을 개최해 서울의 예술교육 전문가들과 새로운 교육 방식을 공유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예술가·행정가가 함께하는 국제예술교육포럼의 형태로 확장했다.

② "서울, 창작의 도시로" 서울은 이 시기부터 '창작이 이뤄지는 도시'로서 국제 예술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해외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 레지던스 허브로 부상했다. 연희문화창작촌·금천예술공장·문래예술공장 등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뿐 아니라 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2009~2018은 서울문화재단 21년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기록된다. 2009년 금천예술공장 개관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0회에 걸쳐 개최된 이 심포지엄은 매년 예술계를 관통하는 주제를 선정해 창작공간의 국제적 지명도를 높이고 국내 예술지원의 새로운 정책 흐름을 주도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커뮤니티아트, 예술가의 노동, 젠트리피케이션 등 동시대 예술의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연 ISPA 총회(2012)  
↑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2015)

창작공간의 역할을 재정립했고, 제10회 심포지엄 '창작공간 패러다임 시프트 shift'를 끝으로 10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③ "ISPA 총회, 서울에서 세계로" 2012년 서울문화재단은 아시아 최초로 ISPA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다. '문화변동 Cultural Shifts'을 주제로 열린 이 총회에는 34개국 450여 명의 공연예술 관계자가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예술 행사로 치러졌다.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기까지 2009년부터 유치 활동과 준비를 시작하고 재단 설립 초기부터 이어온 회원 활동이 바탕이 됐다. 이후 재단은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연예술 기획자와 전문가에게 총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세계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시했다. 이 경험은 서울이 명실상부 국제 공연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 ④ "서울, 도시 간 문화정책의 주체로"

2013년 서울-베이징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과 예술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같은 해 세계도시문화포럼 World Cities Culture Forum, WCCF에 가입했다. 이로써 서울은 런던·뉴욕·암스테르담 등 세계 주요 문화 도시와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예술 교류를 논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축제의 형식을 넘어, 도시의 문화정책을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은 이제 예술을 교류의 수단이 아닌 도시의 언어로 삼으며,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기 시작했다. 예술교육의 철학이 정립되고, 창작공간이 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했으며, 공연예술이 국제 무대로 진출하고, 문화외교의 틀이 갖춰졌다. 이 모든 흐름이 맞물리며, 서울문화재단의 국제 교류는 도시와 예술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시작했다.

## 2014-2019 네트워크·플랫폼 강화기

문화정책 교류 플랫폼의 역할을 확립하다  
서울문화재단은 도시·예술가·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형 국제 교류 구조를 확립하며, 서울을 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WCCF 회원 가입을 계기로 서울은 핵심 회원 도시로서 2017년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WCCF 서울 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2017년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공동점을 지닌 아시아 권역 도시 간 상호교류를 통해 도시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적 대안을 찾기 위한 아시아도시문화포럼 Asia Cities Culture Forum, ACCF을 개최, 아시아권 문화정책 협력체를 주도했다. 이 포럼에 도쿄·베이징·상하이·선전·싱가포르·시드니·도쿄·타이베이·홍콩·후에 등

아시아 주요 도시가 참여했으며, 2019년까지 3년 연속 서울에서 열렸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는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를 중심으로 프랑스 거리예술·서커스 기관과 단체의 협력이 이뤄졌다. 양국 예술가가 공동 창작과 교류 워크숍을 진행하며 '예술이 도시의 경계를 넘는 방식'을 실험했고, 이는 이후 서울형 국제 예술 교류 프로그램의 모델로 이어졌다. 양국의 거리예술·서커스 전문 기관이 협력해 창작그룹 노니&프랑스 서커스 아티스트, 예술불꽃 화랑&까르니비호, 율웨이즈 어웨이&극단 오스모시스 등 3건의 공동창작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작품들은 양국의 대표 축제에서 공개하는 등 서울 거리예술의 '국제 공동 제작 체계'를 정립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 LCE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 워크숍(2017)  
↓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 개막 현장(2017)



2017년에는 예술가 중심의 교류를 한층 발전시켜 '레지던시형 교류'와 '프로젝트형 교류'를 병행 추진했다. 금천예술공장·문래예술공장 등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미국·일본·대만·아랍에미리트·스페인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예술가 상호 파견, 전시 공동 기획,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이 교류를 통해 서울의 창작공간은 국제 예술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형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한편, 같은 해 재단은 해외 문화예술 네트워크 주관 교류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ISPA 총회에서는 '도시와 공연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서울의 문화정책 사례를 발표했고, 국제예술가 레지던시 네트워크Res Artis 연례회의에서는 '창작공간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서울시 창작공간 운영 모델을 공유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은 세계 주요 문화기관과의 협력 거점을 공고히 하고, 서울이 국제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실질적 주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기 서울문화재단의 국제 교류는 WCCF와 ACCF를 양축으로 삼은 문화정책 교류 플랫폼의 정착기이자, 서울형 예술협력 모델을 구체화한 창작·교육·정책의 통합기였다. 서울은 예술 교류 도시를 넘어 정책과 담론이 오가고 실험이 벌어지는 플랫폼 도시로도 약했다. 예술교육 분야에서도 국제 협력을 본격화했다. 핀란드 헬싱키의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예술교육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2013년 현지 기관 답사를 계기로 교류가 시작돼 2018년에는 핀란드의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해 국내 첫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견학하고 공동 워크숍과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 MOU를 체결하며 양국의 예술교육 정책, 콘텐츠, 공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질적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첫 협력 프로젝트로 2019년 TA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돼 서울문화재단의 TA Teaching Artist와 아난탈로의 AT Artist Teacher가 함께 수업을 기획·운영하며 국제 예술교육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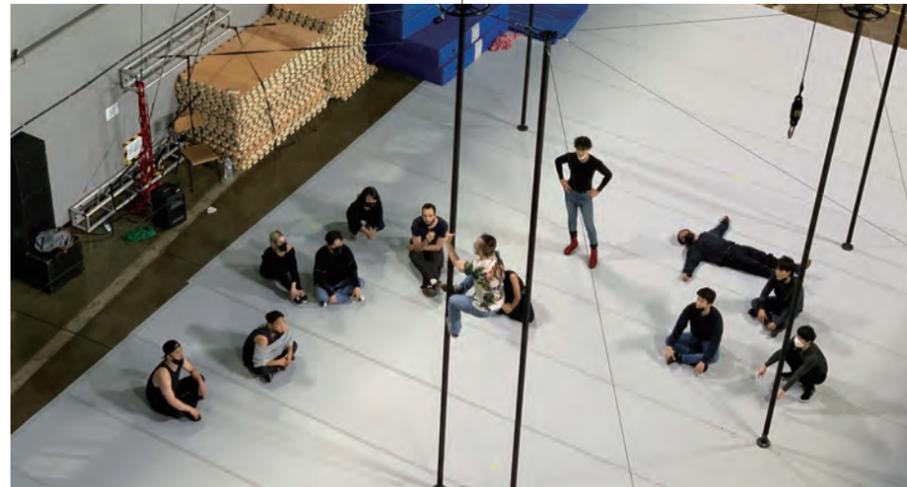
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점핑업'(2022)  
→ 서울무용센터에서 진행된 서울국제안무워크숍(2020)

## 2020-2023 제한·축소기

### 새로운 연결과 실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 교류의 물리적 단절을 초래했지만, 서울문화재단은 이를 단순한 공백이 아닌 새로운 연결 방식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대면 중심 교류를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하며 '관계의 지속'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다양한 실험을 이어갔다.

먼저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온라인 워크숍·비대면 전시·화상 토론 등을 추진했다. 서울무용센터는 해외 안무가와 온라인 쇼케이스를 진행했고, 금천예술공장은 입주예술가 간 협업을 영상 전시 형식으로 전환했다. 연희문학창작촌은 해외 작가와의 낭독회 및 토론을 온라인으로 이어가며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교류 가능성을 보여줬다.



예술교육 분야에서는 뉴욕 LCE와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가 주요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다. 두 기관과의 온라인 세션을 통해 팬데믹 이후 예술교육의 철학과 방식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모색했으며, 2022년 11월 열린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기간 중 아난탈로 아트센터 디렉터 등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 포럼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연결'을 개최함으로써 팬데믹으로 주춤하던 국제 예술교육 교류를 다시 활성화했다.

이 시기 거리예술·서커스·비보잉 등 축제 분야 역시 영상 콘텐츠와 스트리밍 형식으로 국제 무대와의 연결을 유지했다. 비록 이동은 멈췄지만, 서울은 예술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재단은 '교류의 멈춤'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의 확장'을 향해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2022년 이후 교류는 점진적으로 회복했으며, 서울무용센터는 국제 프로그램을 재개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나갔다.



## 2024-2025 회복·재도약기

### 글로벌 문화 교류를 넘어 협력 모델로 나아가다

20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서울문화재단은 국제 협력의 방식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교류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로 세계를 잇는 도시, 지속 가능한 협력의 틀을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2025년 재단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중앙아시아 3개국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공동 공연과 예술가 교류를 추진했다. 이는 서울이 예술을 매개로 도시 간 연대를 실현한 대표적인 국제 협력 사례로, 서울형 문화 교류가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역사와 정체성을 나누는 협력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예술위원회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IFACCA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공동 주최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에서 서울문화재단은 '매력중심 도시 발전 전략 연구City Attractiveness Compass'를 소개하며 도시의 문화적 매력과 예술 생태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서울형 문화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를 주제로 서울국제 예술포럼Seoul, Arts, Future, Talks, SAFT을 개최한다. 국내외 예술가와 문화 정책가, 도시 담당자들이 참여해 서울의 문화정책 비전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이 포럼은 향후 정례회를 거쳐 문화정책 담론을 발신하는 중심 도시로서 서울의 도약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시아 미래세대를 위한 한·중·일 예술가 교류도 융합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올해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Unfold X'에서 도쿄와 베이징 작가 교류를 추진해 서울은 아시아 문화허브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국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대학로극장 퀴드는 스코틀랜드 극단

← 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개막 현장(2024)  
↳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무대에 오른 <열차 37호>(2025)

토르투아즈 인 어 너셀Tortoise in a Nutshell과 협력해 다원예술 작품 <컨서드 아더스Concerned Others>를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였다. 영국문화원과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가 협력한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공공극장이 국제 공동 제작과 해외 초청형 공연 유통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예술상 제1·2회 수상작에 대해 유럽 7개국 8개 도시 총 12회 순회공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에서 서울 창작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예술상 수상작의 해외 진출은 '창작-인증-확산-향유'로 이어지는 글로벌 예술생태 선순환 구조 안에서 예술가의 국제 무대 진출 기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국제 협력의 외연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2025년 일본 도쿄도 역사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융합예술 분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및 해외 한국문화원과의 공연 교류를 통해 중앙아시아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투자개발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각예술 분야 중동권 문화 교류의 기반을 강화했다. 서울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중동·유럽·미주로 이어지는 국제예술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문화 리더십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 예술가와 작품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 있다. 예술가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만큼, 그 여정을 함께 설계하고 뒷받침할 공공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단순히 서울의 예술이 세계 무대로 확산되는 것을 넘어, 세계 도시를 잇고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를 제안하는 글로벌 리더 도시로 나아가도록 지지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에게는 글로벌 도전과 협력의 장으로, 서울이 세계와 이어지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 창작에서 확산까지 서울예술상 수상작의 첫 유럽 순회공연

서울에서 피어난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지금, 서울문화재단은 우리의 순수예술이 국제 예술 교류의 주체로 성장해가는 변곡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 3개국을 순회한 허윤정의 <악가악무-절정絶頂> 공연이 현지 관객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막을 내렸다. 한국 전통예술의 깊은 뿌리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이 공연은, 동유럽 주요 도시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서울에서 출발한 공연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울림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다. 이번 순회공연은 2025 '투어링 K-아츠 Touring K-Arts'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후원과 서울문화재단의 추가 지원으로 추진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K-팝과 드라마·게임 등 한류가 각광받고 있지만, 그 뿌리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순수예술의 창작력과 실험 정신이 존재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예술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예술상을 중심으로 '창작-인증-확산-향유'에 이르는 예술지원 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이번 유럽 순회공연은 이 선순환 구조의 '확산' 단계의 첫 문을 열었다.

'투어링 K-아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전시·교육 등을 재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인증받은 우수 콘텐츠로 서울예술상 수상작을 추천하고, 매칭된 작품에 투어를 위한 항공료와 국가 간 이동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예술

작품이 해외 무대에서 공연되고, 그 성과가 다시 창작 생태계로 환류되는 과정을 통해 서울 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올해는 각각 제1·2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자인 허윤정의 <악가악무-절정>과 99아트컴퍼니 <제, 타오르는 삶>이 선정돼 유럽 7개국 8개 도시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동유럽 투어의 주인공인 허윤정의 <악가악무-절정>은 거문고 연주와 정체를 비롯한 무용이 결합된 전통예술 공연으로, 소리·몸·움직임이 결합해 절정의 순간에 이르는 과정을 강렬하게 풀어냈다. 체코 프라하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빈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어진 공연은 각국 현지 공연예술 관계자와 관객으로부터 호평받았다.

무료 공연임에도 빈 좌석 없이 전석 매진을 이룬 이번 공연은 잦아들지 않는 기립박수와 악기에 대한 관심으로 막이 내린 뒤에도 공연장을 떠나지 못하는 관객으로 가득했다. 특히 해외 관계자들의 협력 및 페스티벌 초청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작품이 가진 예술적 울림과 확장 가능성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오는 11월과 12월에는 99아트컴퍼니의 <제, 타오르는 삶>이 유럽 투어에 나선다. 한국 민속무용인 승무의 리듬과 선율 그리고 고대부터 내려온 제 의식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고된 노동과 삶의 송고함을 기리는 작품이다. 11월 11일 한국-안도라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바리(15일 키스메

오페라극장 Teatro Kismet Opera), 로마(18일 바스첼로 극장 Teatro Vascello), 프랑스 파리(21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공연장), 토론투앵(25일 레만 예술의 집 Maison des Arts du Léman), 벨기에 브뤼셀(28~29일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공연장), 체코 프라하(12월 2일 아르하 극장 ARCHA+)에서 각각 순회공연을 진행한다.

이 작품은 영국문화원과 퍼 플레이스 The Place의 초청으로 진행된 코리안 댄스 페스티벌 2024에서 공연하며 영국 '그린 룸 리뷰 Green Room Reviews'로부터 "놀랍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최면에 빠진 듯 진실로 대단한 작품"이라는 평과 함께 별 다섯 개를 받았고, 같은 해 부산국제연극제 글로벌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유럽 투어를 통해 세계에 한국 현대무용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상을 통해 축적한 서울의 우수 예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세계 무대와 연결하며, 창작-유통-향유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2026년에는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등 국제 교류와 관련한 주요 계기가 예정된 만큼, 재단은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술인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단은 예술인이 서울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함으로써 순수예술이 K-컬처의 기반이자 글로벌 문화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다.

# 서울국제예술포럼, 세계가 함께 말하는 예술과 도시의 미래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서울이 예술 언어로 세계와 소통하며 세계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장이 펼쳐진다.

11월 4일 세계가 서울에 모여 예술과 도시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는 서울국제예술포럼(Seoul, Arts, Future, Talks, SAFT)이 시작한다. 올해는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 해이기도 하다. 세계가 다시 한국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을 통해 또 다른 방식의 국제 대화를 시작한다. SAFT 2025는 정치와 경제 회의가 아닌, 인간과 예술,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국제 포럼이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AI의 등장과 챗GPT의 상용화 이후 현대 문명과 사회의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손쉽게 뽑아내는 시대의 변화에 예술계는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그려내고 있다. 이제는 AI 기술을 공동 창작자로

칭하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사용하던 개념조차 본래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국제 예술 시장에서 서울은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세계 시장 안에서 문화 콘텐츠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멀게는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BTS의 활약과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한류의 성적이 날로 갱신되는 요즘이다. 이것을 서울의 매력이라고 봐야 할까, 콘텐츠의 힘으로 봐야 할까. 대중문화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서울의 순수예술도 세계 시장에서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도시정책, 도시의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이 기세에 힘입어 서울시도 세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술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현장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과 현장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려 한다. 예술가의 창의성과 도시 정책의 구조가 어떻게 서로를 지지할 수 있을지, 또 예술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매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의한다.

SAFT 2025는 단순한 강연이나 전시가 아니라, 예술과 정책,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의 바탕이 되는 담론의 무대가 되고자 한다. 예술가·행정가·도시계획자·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해 서울을 비롯한 세계 각 도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예술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본다.

## 세계 문화도시를 위해 우리가 나눌 이야기

올해 포럼의 세션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Artistic·I × Artificial·I,

2부 서울다움과 예술도시Seoul × Arts,

3부 로컬리티와 매력의 도시정책Locality ×

Attraction이다. 세 축은 각각의 분야를 다루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바로 ‘인간과 예술,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이루기 위한 실천 방향 모색’이다.

1부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 세션에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김대식 교수(뇌과학자),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로운 안무 방식을 연구하는 김혜연 안무가, 기술 기반 예술 창작자인 오주영 작가, 그리고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의 공동대표이자 예술감독인 게어프리트 슈토커Gerfried Stocker가 함께한다. 이들은 기술의 지능과 예술의 감각이 만들어내는 공진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적 상상력과 인간 창의성의 관계를 논의한다.

2부 서울다움과 예술도시 세션에는 캐나다 공연예술마켓CINARS 총감독 질 도레Gilles Doré,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국제교류총괄 로나 두기드Lorna Duguid, 그리고 필라델피아 미술관 아시아미술 디렉터 겸 한국미술 큐레이터인 우현수 디렉터가 참여한다. 질 도레 총감독은 세계 예술시장의 트렌드와 유통 구조의 변화 양상을 현장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나누고, 로나 두기드 국제교류총괄은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모넨텀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가 정책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 활발하고 지속적인 국제 교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부관장을 지내기도 한 우현수 디렉터는 지난 30여 년간 미국 미술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미술,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와 도시에서 경험한 ‘한국·서울다움’의 매력을 해석하고,

서울이 예술도시로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한다.

3부 로컬리티와 매력의 도시정책 세션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모종린 교수(도시경제 및 골목상권 전문가), 바이브랩VibeLab 공동 대표이자 야간문화정책 컨설턴트 루츠 라이센링Lutz Leichsenring,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의 우정현 교수가 함께한다. 특히 루츠 라이센링은 야간문화가 단순히 유흥과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아닌, 다양성과 안전이 보장된 시민문화로 확장돼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모종린 교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의 로컬리티가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자원임을 짚으며, 도시의 매력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공유한다. 우정현 교수는 디지털 기술, 인간의 감각적 경험, 그리고 도시 공간의 관계를 연구해온 관점을 바탕으로, 기술이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시민의 감각적 경험을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디지털 전환DX이 도시의 장소성, 즉 로컬리티의 의미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며, 예술과 기술, 정책이 함께 도시의 매력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들은 로컬리티와 매력을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라보며, 예술과 정책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 전략을 모색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도시의 매력을 예술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서울의 예술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실험을 바탕으로, 예술이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국제예술포럼은 그 첫걸음으로, 서울이 세계와 예술의 언어로 소통하며 ‘세계 문화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담론과 도약의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이 세계와 함께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작은 실험의 장이기도 하다. 단순한 담론의 교류를 넘어, 실제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구체적 장치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관계자, 국제 예술기관, 도시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각국의 문화 정책 경험과 예술 교류 사례를 공유하며, 서울의 예술 생태계가 전 세계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한다. 단기 교류를 넘어 도시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고민하고, 예술과 정책이 만나는 실질적 접점을 탐구한다. 이러한 만남이 포럼 이후에도 이어져 서울이 세계와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SAFT 2025는 완성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비춰보는 과정에 가깝다. 기술, 예술, 정책, 그리고 도시의 삶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만날 때 어떤 상상력이 피어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하는 자리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포럼이 단발적 행사가 아닌, 예술과 도시, 사람과 정책이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가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사업과 정책에도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해 예술 현장에 구체적인 도움과 더 나은 변화를 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는 지금, SAFT 2025가 그 출발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불빛을 밝혀갈 것이다.

# “문화 교류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로나 두기드 Lorna Duguid**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Creative Scotland  
국제교류 총괄 Head of International

**Q. ‘모멘텀Momentum’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모멘텀’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그리고 페스티벌스 에든버러Festivals Edinburgh (에든버러 주요 축제의 연합 조직)가 함께 운영하는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각국의 문화기관과 예술가 중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물을 초청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술가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기관의 리더나 정책 담당자, 큐레이터, 페스티벌 기획자 등 문화 생태계 전반을 움직이는 인물들입니다. ‘모멘텀’에서는 그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에든버러 축제 기간 다양한 공연과 회의에 함께하고, 스코틀랜드의 주요 예술기관과 실무자들을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하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종종 ‘문화 파트너 결연 프로그램cultural dating agency’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협업이 탄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것이 저희 ‘모멘텀’의 국제 교류 모토입니다.

**Q. 프로그램의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관계’입니다. 모멘텀은 단기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지향합니다. 참가자들은 짧은 체류 기간 스코틀랜드의 예술가, 프로듀서, 행정가들과 교류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협력의 형태를 발전시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호혜성reciprocity’이에요. 많은 나라가 자국의 콘텐츠를 해외로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외부의 창작자와 사상가를 초대해 스코틀랜드 내부에서 협업이 일어나게 합니다.

↓→ 2024년 ‘모멘텀’을 통해 한국의 프로듀서 홍민진 (극단 산)과 스코틀랜드 극단 윈더폴스가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의 모습



예술 지원기관이지만, 에든버러 시의회와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도시 마케팅 부분에서는 서로가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지만, 다른 국가 기관들과 협력해 에든버러의 여러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스코틀랜드 전체의 예술 생태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 모델의 핵심은 ‘협력의 균형’입니다. 각 기관이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는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독특하고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꼽힙니다.

**Q. 스코틀랜드의 예술가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는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다년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술가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현재 251개 기관이 3년 단위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인 창작과 관객 개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개별 예술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문화 생태계 전체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예술은 성과가 아니라 시간을 건디는 구조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이 스코틀랜드의 ‘모멘텀’에서 착안할 만한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울은 이미 예술적 잠재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두 갖춘 도시입니다. 다만 도시 차원에서 국제 교류를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관계 중심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는 단순히 예술 행사를 유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기관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모멘텀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연결’하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도시가 이러한 교류를 촉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문화 교류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발전합니다. 국제 교류는 성과 중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신뢰와 협력의 구조를 쌓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교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은 작품의 수출입이 아니라 공동 창작의 과정이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쌓입니다.

**Q. 구체적인 운영 구조나 사례를 이야기해주시겠어요?**

매년 특정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문화 관계자 대여섯 명을 초청합니다. 한국·터키·폴란드·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가 참여했죠. 이들은 일주일간 에든버러의 여러 축제 현장을 방문하며 스코틀랜드의 문화 현장을 체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는 각 참가자에게 맞는 기관이나 예술가를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협업을 위한 초기 자금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국의 극단 산과 스코틀랜드 극단 윈더폴스Wonderfools가 ‘모멘텀’을 통해 만나 서로의 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공동 창작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양국의 배우와 연출가가 함께 작업했고, 에든버러에서 초연 후 한국에서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멘텀은 단발성 교류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작동합니다.

**Q. 스코틀랜드는 도시 차원의 문화 전략도 활발합니다. 에든버러시와의 협력은 어떤가요?**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는 국가·연방 수준의



# “밤이라는 시간의 무대에서 사람과 도시를 잇다”

루츠 라이센링 Lutz Leichsenring  
바이브랩 VibeLab 공동 CEO

**Q. 서울국제예술포럼에서 도시의 새로운 매력 자원으로 주목받는 ‘야간문화’에 대해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인가요?**  
서울국제예술포럼의 청중이 ‘야간문화’라는 주제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발표의 깊이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야간경제의 흐름, 거버넌스, 그리고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주제는 ‘해가 지지 않는 글로벌 야간경제 The sun never sets on the global nighttime economy’입니다. 이 표현은 지구 어디에서나 밤은 계속 존재하므로, 글로벌 차원에서 야간경제는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야간경제는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넘어 문화·공동체·경제가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간문화를 상업이나 관광 요소로 바라보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적 가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제적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바로 그 복잡한 구조를 조명해보려 합니다.

**Q. 한국에서는 ‘야간문화’가 주로 관광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문화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야간문화는 단순한 여가나 관광이 아니라, 상업 공간의 재활성화, 글로벌 인재 유치, 그리고 기후 적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브랩에서 발표할 연구에는 ‘문화가 기술산업 종사자들의 도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산업 종사자는 원격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근 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지역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역설적으로, 야간문화가 풍부한 도시에 젊은 전문가들이 이주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활 리듬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더위가 심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기후가 문화를 바꾸고, 문화가 다시 도시의 커뮤니티를 바꾸는 현상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반드시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 ‘밤에 쉬고 싶은 사람’과 ‘밤에 활동하고 싶은 사람’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죠. 안전과 규제, 공공의 질서를 조율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접근성과 이동성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자정이면 모든 대중교통이 끊기 때문에, 택시 외에는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야간문화의 주체가 이동할 수 있는 특정 계층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야간문화는 관광을 넘어서는, 삶의 영역이자 문화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대상을 ‘관광객’으로 볼지, ‘거주민’으로 볼지에 따라 야간문화의 방향과 도시의 정체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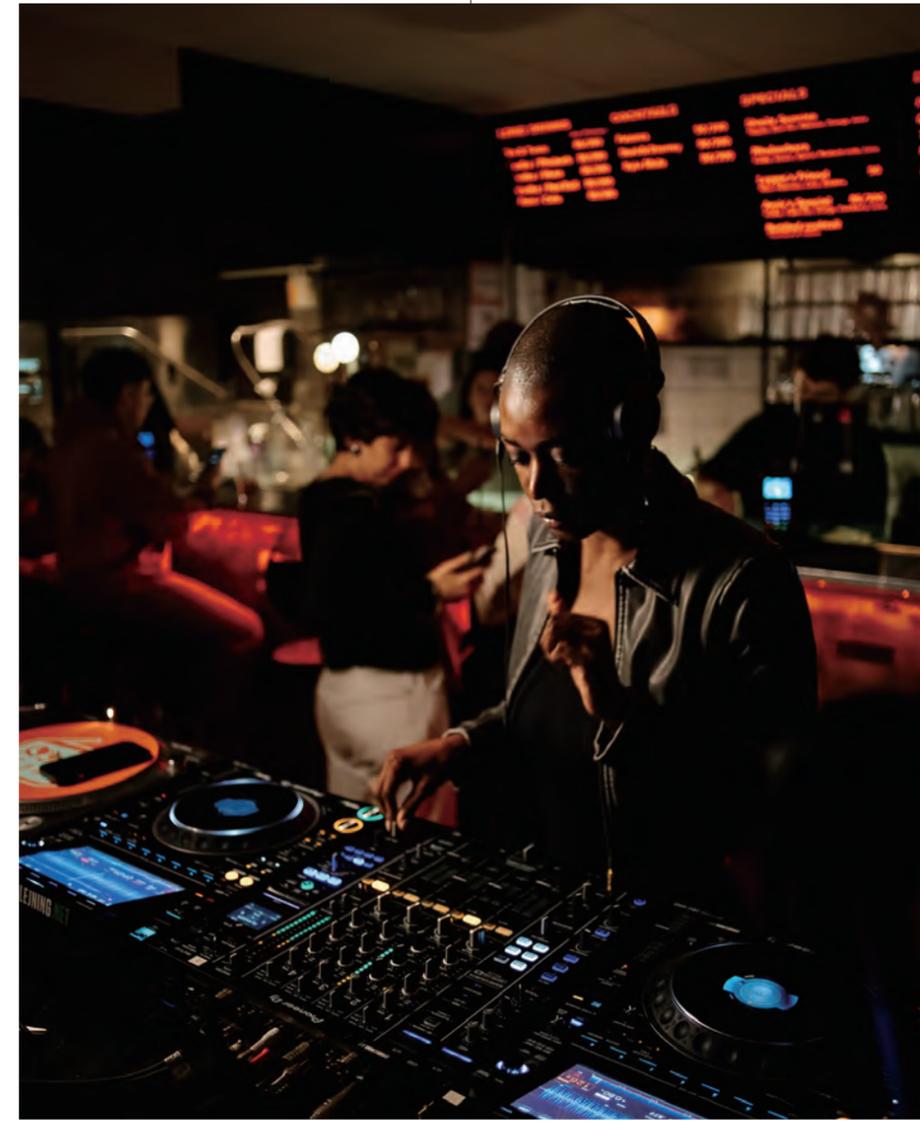
**Q. ‘야간문화’를 유흥의 범주로 바라보는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야간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음식문화 등은 모두 야간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러한 활동이 문화 정책의 영역 안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단순한 오락을 넘어 도시의 문화 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을 젊은 남성의 음주 중심에서 다양한 시민층으로 확장하면, 밤은 유흥의 시간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장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콘텐츠의 폭을 넓히고, 안전과 공존을 강화하며, 알코올 중심의 매출 구조를 줄여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설명해주세요.**  
이러한 확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간문화’를 정책 영역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과 제도,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관광 정책의 부속’이 아니라, 문화·안전·교통·도시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 정책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야간문화의 활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커뮤니티입니다. 누가 야간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창작자와 참여자, 현장의 주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접근성, 다양한 실험과 경험의 기회를 가진 장소로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창작과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정부와 공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정책, 야간 교통, 관련 지원금, 운영 시간 규제 완화, 그리고 안전 등이 포함됩니다.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야간문화는 특정 계층의 소비 공간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울은 야간문화를 도시의 전략적인 매력으로 발전시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야간의 안전과 대중교통이 훌륭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창작자와 참여자 또한 풍부해 보입니다. 따라서 창작자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야간문화를 서울의 도시적

↓ 야간문화가 활성화한 코펜하겐의 풍경 ©Raymond van Mil/ VibeLab



매력으로써 전략적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Q. 팬데믹 이후 야간문화가 일부 위축된 경향을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술을 덜 마신다고 해서 교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도시는 음악, 예술, 그리고 공공 공간을 야간에 활용해 새로운 사회적 결속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은 단순한 감상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도시의 언어이자 사회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설치미술·거리예술·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형식의 예술이 밤의 공간을 재해석하고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때, ‘야간문화’는 소비의 장이 아닌

인간적 교류의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 복합적인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연장과 음악 공간의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임대료 상승까지 겹치면서 많은 문화공간이 문을 닫고 있죠.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커뮤니티와의 소통, 긴급 지원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서울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축제, 공연,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트래킹이나 커뮤니티 모임 등은 이러한 도시의 밤에 활기를 더해줄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Q. 야간문화에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술은 세대나 계층, 배경을 넘어서는 언어입니다. 그 어떤 디지털 플랫폼도 대신할 수 없는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내며, 도시의 밤이 여전히 인간적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늦은 시간에 전시나 버스킹 공연(커뮤니티 콘서트)으로 거리를 밝히는 예술은 공공의 공간을 ‘함께 머무는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야간경제는 소비가 아니라 문화와 창의성을 통한 ‘연결’에 관한 이야기이며, 예술은 그 연결의 구조를 세우는 핵심적인 기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예술 행위가 ‘밤’이라는 시간의 무대에서 사람과 도시를 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야간문화를 인간적 교류의 인프라이자 도시의 매력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국 야간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야간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은 이미 높은 잠재력과 기반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를린의 야간문화도 매우 인상적인데, 서울은 그와 닮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의 안전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문화 재정 지원이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야간문화’가 정책적으로 재정의된다면 서울은 이를 도시의 전략적 매력으로 발전시킬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 공공의 차원에서 야간문화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 특히 ‘서울어텀페스타’처럼 도시가 직접 야간 시간대의 문화를 기획하고 시민과 나누는 시도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 문화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서울문화재단, 교류를 넘어 세계에 길을 내야

서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다양한 창·제작자가 이곳에 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바로 서울문화재단이어야 한다.

필자는 [문화+서울] 8월호에 '개구리 울쟁이 시절을 잊어야 한다'며 세계 일류도시를 꿈꾸던 서울은 이제 세계 문화수도를 향해 나아가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글이 게재된 후 우리나라는 또 바뀌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비롯하는 문화 현상이 우리 사회를 한 차례 쓸었고, 이제 정부가 나서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며 K-컬처의 성과를 굳히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실제 SM 엔터테인먼트·YG 엔터테인먼트·하이브 등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만들었다.

최근 변화를 보면 분명 K-컬처에 대한 변화는 현실로 느껴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국경절에 걸친 추석 연휴에 중국인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고 세계 주요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 또한 급증했다. 연휴 기간 백화점을 찾은 필자도 중국 손님 접대에 여념이 없는 백화점에 스스로 물건을 골라 빠르게 계산하고 나온 적이 있다.

분명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전 K-컬처와 다르다. '한류'라 부르는 이전 K-컬처는 무국적의 새로운 세계관을 내세운 K-팝이나 우리나라 사회의 갈등을 극대로 표현한, 예컨대 (지금 우리 학교는)이나 좀비 시리즈, (기생충) 등과 같은 드라마·영화 등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명확히 우리 문화에 근거해 있고, 남산을 비롯해 현재 우리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방문객의 태도가 달라졌다. 쇼핑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영화의 소재가 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우리나라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경주나 제주·강릉 등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상업적 관광'에서 '문화적 관광'으로, 서울 중심에서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대다수 방문객은 관광객으로서 쇼핑에 열중한다. 그 나머지도 우리나라 예술, 예컨대 공연이나 전시·영화를 보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K-팝도 보지 않는다.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서울의 명소나 한국의 문화라 볼 수 있는 전국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맛을 쓰고 한복을 입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K-컬처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확실히 현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다극 체계로 전환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새롭게 개편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첫 회의를 열고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이 설계도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5극3특'으로 변화한다. 5극은 수도권을 포함한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말하고, 3특은 제주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 체계에 따라 각각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 체계로 재편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구성하게 된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경제문화중심'이다. 금융과 콘텐츠, IT, 스타트업 등 성장성이 강한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콘텐츠다. K-팝을 포함해 영화·드라마·게임 등 거의 모든 콘텐츠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해선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 중 하나는 K-컬처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게 늘 하는 고민이라 그다지 중요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나,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은 법'. 어느덧 거의 정상에 다 온 느낌이라 그다음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라는 건 하나의 트렌드다. 변하기 시작하면 쉽게 따라잡을 수 없어 금방 뒤처진다. 예컨대 1990년대 초중반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한 홍콩과 중국영화를 생각해보라. 홍콩의 반환이라는 역사적 충격이 있었지만, 과다하게 노출된 누아르 방식의 홍콩영화와 중국 무술은 곧 그 위치를 상실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일찍 J-컬처로 세계를 지배하며, '쿨 재팬 Cool Japan'을 외친 것이 일본이다. 그들은 1990년대 중후반 X-재팬 Japan을 축으로 초밥을 세계화했고, 일본식 정원 문화를 퍼뜨려 뉴욕의 아파트에 정원이 들어서도록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쿨 재팬'을 공식 국가 브랜드로 내세우고,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일본 콘텐츠의 판촉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간혀 그들의 성장판은 단했다. 그뿐 아니라 일본적인 것을 내세우는 콘텐츠의 특성으로 확장성을 상실한 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 세계인의 일상에 파고들며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 문화도 그렇게 시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문화로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수출국가에서 생산국가, 즉 창조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의 힘을 지속하려면 우리의 문화를 '파는 방식'에서 세계가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 쉼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세계의 트렌드에 앞서가는 그런 창조국가, 문화 생산국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생산 체계는

이를 많이 수용했다. 특히 K-팝은 우리가 아닌 세계, 특히 북유럽의 작곡가에 의해 생산됐다. 공연팀도 각각의 다른 유닛으로 구성, 때와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 이미 세계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췄다. K-팝에 우리의 세계관은 없다. 거기엔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다. 아울러 피나는 연습을 통해 세계가 감동할 만한 퍼포먼스를 만들어 보편적인 세계 시민을 유혹한다. 역사 이래 이런 음악 장르는 없었다. 최신의 문화는, 패션쇼의 오트쿠튀르를 일반인이 그대로 입을 수 없듯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K-팝은 다르다. 보편적 세계관과 예쁜 가사, 그리고 멋진 아이들이 나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저항도 없고, 거침도 없는데 즐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K-팝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장르를 만들어 세계를 자기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아직 나머지 분야는 그렇지 않다. 깊은 사회적 문제에 의존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기생충)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 한류의 역사를 보면 제1기는 (공동경비구역 J.S.A), (쉬리) 등 남북문제가 주도했고 2기는 (시크릿 거든)과 같은 보편적 연애 이야기, 3기에 들어서면 (기생충)이나 학교 시리즈, (지옥)과 같은 좀비 시리즈가 주도했다. 즉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대립, '헬조선'으로 이야기되는 극단의 현실이 한류의 중심이 된 것이다.

물론 이 생산 체계를 세계화하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드라마·영화가 세계화된 데는 우리나라 제작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작가주의와 감독주의가 큰 힘을 차지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스템 내에 세계 보편적 요소를 넣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콘텐츠의 생산 시스템에서 좀 더 다양한 생산 주체를 놓자는 것이다. 곧 세계의 다양한 예술과 창작 주체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이 시스템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자신을 키워나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가 있는 나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 그래야 식상함으로 초라해진 앞의 문화처럼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지속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선언,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서울문화재단

문화 강국의 중심 도시이자 5극3특 체계에서 경제문화수도에 해당하는 서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다양한 창·제작자들이 서울에 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는 금천예술공장이 있다. 2009년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해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적인 창작공간으로 운영된 금천예술공장은, 팬데믹 이후 국내 작가의 작업 공간으로 변했다. 물론 국내 작가에게도 창작공간이 필요하고, 작업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만 국제 교류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국제 교류 사업을 살펴보면, 여전히 포럼이나 학술 토론회를 여는 등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다. 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 시점에서 여전히 형식적 교류에 그친다는 점은 다소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실질적인 작가의 성장이나 새로운 작업 기회 부여라는 재단의 역할 면에서의 성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제 교류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여러 번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창의적 거점이나 공간을 만들어 선진국의 특정 작가를 유입하거나 MOU를 맺고 일정 기간 상호 교류하는 방식이 전부였다. 예술가들이 해외와 관계하며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계기를 만드는 것과는 다소 먼 셈이다. 이제 세계와 교류를 위해서는 새 판을 짤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새로운 판을 위해 좀 더 다양한 나라에 기회를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K-컬처가 번성하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싶은 수많은 (청년) 예술가 혹은 뮤지션,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가 무척 많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중남미에 얼마나 많겠는가? 이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작업을 한다면, 우리의 문화는 분명 더 커질 것이다.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를 유입하며

호흡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요지는 우리 문화의 다양함과 풍부함을 갖기 위해 세계와 호흡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글로벌 서울도, 세계 문화중심도시 서울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 속의 서울로 바로 서는 것, 지금 필요한 것이다.

2004년 설립 이래 서울문화재단은 여러 경로로 성장해왔다. 초기에 재단은 예술지원에 집중해 다양한 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해왔고, 서울시의 갖은 축제를 넘겨받아 전문 능력으로 그 질을 높이며 예술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왔다. 이어진 단계에서는 10여 개에 달하는 창작공간을 조성해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활동 거점으로 역할을 해왔고, 최근까지는 예술교육과 생활예술, 지역문화 등 시민사회와의 접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며 서울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예술'에서 '시민과 서울의 문화'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 온 것이다.

지금 재단은 이 길의 끝에 서 있다.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경로 끝에서 이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 길로 '글로벌 선언'을 제안한다. 글로벌 선언이란 국제 교류에 바탕을 두고 서울의 작가들이 세계 속에서 활동하도록 돕고, 세계의 예술가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플랫폼으로 재단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간 재단이 서울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노력했다면, 앞으로 재단은 세계 속에서 호흡하며 서울의 예술가가 세계로, 세계의 예술가가 서울로 들어오는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내실 있는 예술과 예술인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의 문화와 하나 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문화를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일 뿐,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치지 않는 문화 생산국가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서울을 문화 생산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류세일,

“이상하다. 이상하다.”

연극제작집단 ‘공놀이클럽’의 유일한 배우 류세일은 연출가 겸 극작가 강훈구를 비롯한 극단 식구들과 최근 이 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뇌는 중이다.

## 배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전조가 이상하다. 망할 것 같다. 왜 우리 걸 다 좋아하지?’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저희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연극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전히 하고요.”

## 천생 직업

공놀이클럽의 취향이 관객의 선호와 맞물린 대표적 작품이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이다. 이 작품은 올해 제3회 서울예술상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 부문,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받았다.



서동민 작가의 데뷔작인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한국 서민 가정이 장남의 귀어 정체성과 직면하면서 균열되고 갈라지는 과정을 그린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새끼줄을 끈 작가의 필력도 대단하다. 류세일과 강훈구 연출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공놀이클럽은 여기에 전복과 유희성을 더해 재기 발랄한 리듬감을 부여하며 고유성을 획득했다. 트랜스젠더인 오빠 규빈, 집을 먼저 떠나려는 자신의 계획이 어긋날까 전전긍긍하며 오빠의 커밍아웃을 막으려는 동생 은빈, 그리고 보수적인 할머니와 엄마까지 네 캐릭터를 네 배우가 고정으로 맡지 않고 돌아가며 연기하는 메타성은 답이 아닌 질문을 만들어내며 서사를 풍성하게 빛어낸다.

2024년 8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초연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던 작품이다. 개막 직전에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면서, 첫 공연 3일 전까지 대본을 외우지도 못했다. 과감하게 파격적인 설정을 만들긴 했지만, 정작 자신들도 공연 직전까지 ‘서사가 워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런데 기우였다. 개막 이후 객석에서 나온 반응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이야기에 너무 공감했다”였다.

### 어른들이 하는 공놀이, 연극

극의 화룡점정은 류세일이 찍는다. 할머니 역을 맡아 남아 선호 사상을 설파하던 그는 막바지, 가족 앞에서 여성의 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류세일은 “기술적으로 변주를 쥐어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고 한다. 실제로 극 중 선보인 할머니 연기 톤은 자신의 조모에게서 많이 따왔다. 할머니와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고. 듣고 자란 말에서 따온 애드리브가 대본화된 것도 많다. “제가 할머니가 아니라는 건 관객분들이 아는 사실이니, 메소드로 연기해서 할머니처럼 보여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유롭고 재미있게 연기하고자 했습니다.”

유희적이지만 가법지는 않은 게 공놀이클럽의 특징점이다. 워트와 리듬감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툴이 봐야 할 지점들이 불쑥불쑥 떠오른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분명한 대로,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 않은 대로 그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것이 좋은 연극의 특징 중 하나 아닌가. 함부로 가치 판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공놀이클럽의 작법과 화법은,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처럼 관객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게 만든다.

“저희는 분명 진지한 구석이 있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 재미 역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평상시의 가치관과 성향이 작업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옮겨지면서 억지로 떨어지거란 어렵죠.”

규빈을 해석하는 과정에선 캐릭터를 성소수자로 한정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규빈처럼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모두 어떻게든 더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빈이처럼 ‘내 식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물과 차별점을 두지 않았습시다.”

혹자는 연극이 마이너한 장르라 성소수자 얘기를 더 잘 다룬다고 판단한다. 비슷한 성격의 도구라 그 발화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세상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맥락에 놓인 진실을 보존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연극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상당수다.

류세일은 하지만 “연극이 좋아서 연극을 할 뿐이고, 현재 제 표현의 수단이나 방법일 뿐이지 ‘마이너리티를 대표해서 분투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놀이클럽은 연극계 조기축구회 모임이 아니냐는 오해도 종종 받는다. 강훈구 연출은 회장, 류세일 배우는 전무이사를 맡고 있어 생각보다 큰 조직이 아니냐는 물음도 나온다. 두 사람이 모든 걸 다하니 이것 역시 유희적 표현이다. 두 사람은 2017년 한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호흡과 성향이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고, 2018년 서촌공간 서로에서 〈소년소녀 진화론〉을 올린 뒤 다른 제작진들과 도원결의 식으로 극단을 만들었다.

극단 이름은 “공놀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로 끝나는 이근화 시인의 시 ‘공놀이’에서 따왔다. 강훈구 연출은 “연극은 ‘어른들이 하는 공놀이’ 같다”고 말해왔다. 류세일은 “연극은 시간, 사람, 마음 등 필요한 것들이 매우 많은데, 그것과 공놀이랑 비슷하다고 강 연출이 얘기하더라고요”라고 특기했다. 즉 사회의 작은 압축판이 공놀이이자 연극인 셈이다.

그동안 〈폰팔이〉<sup>2019</sup>, 〈망할극장〉<sup>2020</sup>, 〈마더퍼커 오이디푸스〉<sup>2021</sup>, 〈로켓 캔디〉<sup>2022</sup> 등을 선보인 공놀이클럽에게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준 연극은 〈이상한어린이연극-오감도〉다. 지난해 말 제61회 동아연극상에서 새개념연극상을 받은 이 작품은, 어린이극으로는 이례적으로 시인 이상의 대표작 ‘오감도’를 재해석했다. 아동극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는 호평을 들었다. 류세일은 사실 이 작품을 올리기 전 강훈구 연출에 “쉬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털어냈다. 이전까지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다 보니 당시엔 역할을 맡고 싶지 않았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대신 류세일은 연극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자청했다. “다른 작품에서는 배우로서 연기적 고민을 더 많이 했다면, 〈오감도〉에선 극단 구성원으로서 더 고민했다.” 그렇게 연기의 구심력은 단단히 하고, 극단의 원심력은 넓혔다.

### 연극의 ‘위대한 장점’

사실 10대 때만 해도 류세일은 연기에 관심이 없었다.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밴드부에서 기타를 잡았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엔 현실을 생각해야 했다. 일본 취업까지도 알아보던 그는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다. 그러다 영화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1975 (감독 밀로시 포만[Miloš Forman])에서 잭 니컬슨(Jack Nicholson)이 맡은 랜들 맥 머피가 류세일의 인생을 뒤흔들어 놨다.

극 중 맥 머피는 형무소의 강제 노동을 피하기 위해 정신병자로 위장해 정신병원에 들어간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병원의 권위와 광기를 접한 뒤 그는 도전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한다. “당시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던 맥 머피에 쾌감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동시에 ‘연기를 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죠.”

이후 연기학원에 등록한 류세일은 하지만 ‘연기가 운명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궁지에 몰린다. 원하는 대학의 입학시험에 거듭 떨어져 결국 군대에 가게 된 것이다. 전역을 하고 한 대학의 유지결과에 들어갔지만 그곳 시스템과 맞지 않았다. 결국 자퇴하고 한량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알고 지내던 형의 전화 한 통이 구원의 신호가 됐다. 객원 배우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과 작업할 기회가 생긴 것. 이후 연극인들로부터 믿음을 얻게 된 류세일은 거듭 러브콜을 받았고,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거리예술마켓,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에 연달아 함께하면서 차차 이름을 알리게 됐다.

그렇게 배우가 천성 직업임을 깨달았다. “배우는 저라는 인간이랑 잘 맞아요. 수행해야 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야 하거든요. 또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하니까, 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죠.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후진 인간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가운데 연극은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 됐다. 극단 치약무대의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겨울〉같은 좋은 작품도 연달아 만났다. 물론 뮤지컬 〈앨리스 스튜디오〉, 영화 〈이어지는 땅〉 같은 연극 외의 작업도 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연극을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거쳐 가야 할 단계로 여기기도 하지만, 류세일에게 이 장르는 지금도 앞으로도 중심이다.

“전 연극이 마이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대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연극, 연기를 제대로 배우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좋아서, 잘하고 싶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한 관객분이 저희 연극을 보시고 ‘좋은 문학을 하나 읽고 가는 거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좋아서 한 것일 뿐인데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연극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됐어요.”

영화로 연기의 맛을 처음 느낀 그인데, 오히려



지금은 연극 작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류세일은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은 에너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통 연극 작업을 하면,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 프로덕션 사람들과 같이 해요. 그 기간 매일 만나 작품, 인물에 대해 얘기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응축시킨 에너지를, 몇 주의 시간 동안 한마음으로 '뽕' 터트리는데 대단한 매력이 있죠. 영화는 연극에 비해 호흡이 좀 긴 편이죠. 즉 영화가 마라톤 같다면, 연극은 단거리 달리기처럼 심장이 터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퍽' 하고 뛰는 것 같은……."

류세일은 점차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최근 개봉한 조희영 감독의 영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에 출연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여는 낭독공연 '봄 작가, 겨울 무대'의 하나로 11월 공연하는 김다솔 작가의 <참외가 데굴데굴 굴러가면>에도 출연한다.

배우로서도 점점 인정받고, 극단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니 이런 주목도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류세일과 강훈구 연출이 변하지 않아도, 이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류세일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전 늘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커요. 저희가 상을 받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방인처럼 살아왔는데, 상을 받는 순간 뭔가 제도권 안에 포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잇따라 상을 받은 것이

↑ 공놀이클럽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립스틱> ©이지용

더 기뻐어요."  
동시에 상을 받는다는 건 안팎으로 냉정한 시각을 견뎌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수용했다. "상 받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도 저희의 감각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게 하면서 관객들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작품을 우선해야 하지, 시선이나 명예가 먼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망할 수 있는 순간이 울 수 있거든요.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극단도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연극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 지오메트릭 스테디

현대무용/패션  
 @geometricstudy  
 geometricstudy.com  
 2025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2021 청년예술청 개관 프로젝트  
 <탕·빈·곳 새 집의 모양>  
 2020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지원  
 <소리를 춤추다>

## 지오메트릭 스테디의 공연이 궁금하다면

11월 15일 2025년 서울무용센터 하반기 입주예술가  
 작업공유회에서 만나보세요.



“ 지오메트릭 스테디는 무용·음악·미술·패션 등 각기 다른 전공과 표현 방식을 지닌 세 남매 (박성은·박규은·박정우)가 서로의 '언어'를 모아 공연·전시·영상 등의 작업을 하는 그룹입니다. 저희는 누구에게나 있는 자신만의 언어를 하나로 융합하기 위한 과정을 협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 명의 언어를 하나의 작품에 녹여내어 관객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

“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만든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공연자를 찾지 못해 설치미술로 전시했어요. 한국을 돌아오면서 셋이 함께 전시해보면 어떨까하고 제안하면서 지오메트릭 스테디가 시작됐습니다. (박규은) ”

“ 스스로 예술가라고 느끼기보다는 저희의 작업을 보시고 공감해주는 관객이 있을 때 작업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성은) 제 자신을 예술가로 정의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느낀 것들을 시각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잘하고, 상상한 무언가를 만드는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상상한 것과 딱 맞아떨어질 때, 작업하기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규은)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업하는 게 저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이너라 예술가라는 이름은 조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박정우) ”



“ 색 모래를 사용해 움직임의 흐름을 시각화한 <사방치기>2018, LED 패널을 활용해 미디어아트와의 결합을 실험한 <움직임과 오브제, 그리고 미디어에 관한 연구들>2021, 고무줄로 움직임의 긴장과 이완을 시각화한 <AGOGICS>2020 등 다양한 오브제와 장치를 활용해 시간과 움직임의 흔적을 시각화하거나 오감으로 변환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무용센터에서는 입주예술가로서는 <invisible moments>라는 제목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를 좀 더 깊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

“ 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D 모션 캡처를 활용한 영상 작업입니다. 무용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3D로 만드는 영원한 기록과 기록의 편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우) ”

“ 저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자연 현상, 갑자기 포착되는 순간이나 이미지 등에서 시작해서 주제가 정해지고, 그에 맞는 소재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오브제나 무대 장치를 구상합니다. (박규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협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박성은) 언제나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경험이 될 때도 있고, 기술적이거나 사회적인 주제에서 출발할 때도 있어요. 지오메트릭 스테디에서는 제가 평소 흥미로워하던 기술을 직접 다뤄보거나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작업은 결국 '해보고 싶은 것을 실제로 구현해보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우연이나 불완전함이 오히려 영감이 됩니다. (박정우) ”

“ 박서보재단에서 박서보 작가의 그림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심플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작가가 그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반복한 동작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한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 작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시각예술과 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오메트릭 스테디 그룹이 계속해서 작업해오고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들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규은) 저도 같은 전시를 보았는데. 그중 어떤 작품에 대해 박서보

작가님이 "헛발질하던 시기"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어요. 저렇게 대가인 분도 돌이켜보았을 때 무언가를 찾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나니 작업할 때 생기는 많은 고민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박성은) 최근에는 수전 손택의 『사진에 관하여』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현실 자체보다 사진을 통한 인정과 기록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에 대한 통찰이 여전히 마음에 남았어요. 요즘의 이미지 중심 문화와도 맞닿아 있고, 저 역시 작업하면서 '기록되고 소비되는 이미지'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박정우) ”

“ 모자·의상 등 일상의 오브제를 변형하며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미디어아트와 3D 영상 중에도 무대에 미처 올리지 못한 작업이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구상하는 중입니다. (박성은) AI와 3D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면서 수작업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작업해보려고 합니다. (박정우) ”

# 정현준

b.1986  
연극/연출·연기  
@hyunjune.jung  
2025 서울연극창작센터 오픈랩씨어터 <멜라닌>  
202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ART MUST GO ON'  
2018-2020 청년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 정현준 연출의 공연이 궁금하다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OPEN:LAB THEATER <멜라닌>이 열립니다.



연극·뮤지컬·창극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들어가는 연출가이자 배우·제작자로 활동하는 정현준입니다. 연극 형식을 기반으로 작업해왔지만, 음악·무용·영상·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융합하며 공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와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작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형식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작업 방식을 지향합니다.

아내와 함께 2014년에 극단 '실한'을 만들었고, 2017년 들어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단원을 모으고, 공연 레퍼토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극단의 성격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제 삶에서도 큰 변화가 있던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분명 행복했지만,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외로움과 고립감과 같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구나', '소외감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구나,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찾아오는 감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극단 실한의 첫 기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을 다루자"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무대에서 풀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창작 활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 CJ크리에이티브마인즈 선정작인 연극 <아폴로 프로젝트>에 배우로 참여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이 작업이 예술로 불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에서 저는 경상도 소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경상도 소년 세 명과 전라도에서 잠시 이사 온 한 소녀가 친구가 되지만, 지역감정과 편견 속에서 소녀는 결국 다시 광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소년은 친구를 찾아 광주로 달려가지만, 그때 마주한 도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혼란 속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친구를 만나러 온 것뿐인데, 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울고, 외치고, 싸우고, 죽어가고 있을까?" 공연을 마쳤을 때, 저는 무대에서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전까지 박수는 '오늘도 잘 해냈다'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받은 박수는 개인을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품이 품은 질문과 감정,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을 향한 박수처럼 느껴진 것이죠. 관객과 작품과 세상의 어느 한 연결고리의 이음새를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게 예술 아닐까?' 하는 고민이 시작됐고요.

2022년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 경연작 <파경>과 오는 11월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공연할 <멜라닌>을 대표작으로 삼고 싶습니다. 연출가로서 첫 작품인 <파경>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 '숙희'의 시선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국가적 폭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개인이 겪는 내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며 저는 제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려움, 선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책임, 끝내 조율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 그 안에서 제가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파경>은 결과물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연출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 준 작품입니다.

<멜라닌>은 제29회 한겨레문학상을 받은 이승민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파란 피부를 가진 '재일'을 중심으로 타자화, 차별, 내면화된 감정을 다루는 연극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설명보다는 감각을, 사건보다는 관계에 중심을 두고, 해답보다는 질문을 남기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출 방식 역시 음악·공간·배우의 움직임·색채 등 무대 언어를 확장해 감정의 층위를 시청각적으로 구현하고자 실험하고 있습니다. <멜라닌>은 리얼리즘과 추상성을 결합한 작업이며, 관객이 인물의 삶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곁에서 서서 함께 감각하도록 초대하는 공연입니다. <파경>이 과거의 저를 돌아보게 한 작업이라면, <멜라닌>은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공동창작 방식과 융합적 무대 언어를 실험하면서 공연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감정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전반에 드러나는 인간의 집단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라는

←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1인극 <Mad 베렌교>(2021)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 현상에 주목하고 참여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욕망과 감정 구조가 작동하는지 탐구합니다. 최근 제가 흥미롭게 관찰하는 현상은 '달리기' 열풍입니다. 사람들이 달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유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모이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저는 거기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풍은 언제, 어떤 이유로 식게 될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도 직접 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 이면을 질문하는 일, 그리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인간 내면의 감정 구조를 탐구하는 일. 저는 이 두 가지가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자신만의 언어로 설득하는 일이 예술 창작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정면으로 건디는 작품으로, 원테크 방식과 인물의 심리 묘사, 서사의 밀도가 매우 뛰어나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특히 등장인물이 매우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표현돼, 단역마저 서사의 질감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연기 설계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연출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한 작품입니다.

저는 그동안 소외와 결핍과 같은 감정에 관심을 두고 공연을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여럿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를 돌보지 못한 채 외롭게 밀려나는 마음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말은 넘치지만 진실 어린 이해는 부족하고, 연결돼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밀어내는 모습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술이 이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요즘 저는 공연을 통해 소외를 넘어선, 서로가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연에도 위트와 여백, 사람을 숨 쉬게 하는 온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 시설안전1팀 이우형 편하고 안전하게, 다 같이

**이우형** 주임은 2022년 7월, 늦은 나이에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했습니다. 최고령 신입 직원이 아닐까요?(웃음) 건축설비를 전공했고, 소방·공조·기계·자동제어 등 과목을 배우며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일반 회사와는 업무 시스템이 다소 달라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안전팀으로 시작해서 대학로센터에서 공사·방역·소방 훈련 등 시설 업무를 맡았고, 현재는 시설안전팀으로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시점은 그때지만, 사실 서울문화재단과의 인연은 대학로센터의

옛 흔적인 동송아트센터에서 근무하던 시절로 거슬러갑니다.

**문화예술을 알고, 좋아하게 되며** 고향인 안면도에서 서울로 상경해 입사한 곳이 동송아트센터 시설팀이었습니다. 공연장·영화관·전시실이 복합으로 운영되는 건물이라 제 담당 업무는 기계설비였음에도 소방·전기 설비의 유지관리까지 배우게 된 것이지요. 동송홀에서는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 진행되는 무대 설치, 조명·음향 작업을



보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때 처음 공연장 시설에 관심을 두게 됐고요. 당시 대표님께서 동송아트센터 직원이라면 최소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매년 마지막 달이면 연말 행사로 직원의 가족들을 초대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죠.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2018년 이곳이 서울문화재단에 매각되면서 퇴사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지는 동안 동송아트센터의 임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관리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2020년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임시 운영은 종료됐고, 서울문화재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후 남산예술센터 무대기술팀 시설조감독으로 재직한 것이 정확하게 재단과 처음 만난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능 인재'와 함께하는 서울문화재단의 매력**이라면 당시 동송아트센터 임시 운영을 위한 용역으로 재단 직원분들과 일하면서, 모두가 각기 다른 전공으로 입사했지만 문화예술 사업을 위해 서로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입사하면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동송아트센터가 문을 닫고, 마지막 공연을 진행하면서 다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고요. 실제로 남산예술센터에서 일해보니 시민과 예술가를 지원하며 느끼는 공감과 보람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업무의 일 년 루틴**은 전년도부터 시작되지요. 시설안전 2팀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간 가운데 안전·환경 개선 공사가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취합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일정을 협의해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되면 하자 보증 기간 동안 상·하반기 각 1회씩 하자 검수를 진행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설 안전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특성상 환경 개선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지라 공사·작업 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안내 등을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ESG 경영 가운데 환경경영과 관련해 일회용품 줄이고 폐기물을 감축하는 등 '제로 웨이스트'를 실행하고, 동시에 냉·난방기의 온도와 실내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책상을 오가며** 현장에서 근무할 때면 공간 담당자와 상의해 진행할 수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만, 행정 업무를 위해 본관에 출근해야 하는 일도 생기지요. 이 경우 현장과 의견 차이가 생기면 바로 피드백하기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재단에서 시설 안전 업무를 한다는 건 현장 중심의 행정 실행력과 공사 현장과의 소통·해결 방법을 모두 갖춰야 하는 일입니다.

**문화행정가로서 시설안전팀의 역할**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여러 공간 중에는 노후한 공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신규 공간을 네 곳 개관하기도 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은 20년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지요. 노후 건물에 관한 시설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내진 보강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임무도 있고요. 또 매년 안전교육 활동으로 소방 안전 체험과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요. 많은 직원이 참여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예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시민이 문화 공간을 편하고 안전하게, 또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설안전팀의 일이니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30대 때부터 꾸준히 탁구를 해오다 올해 사내 동호회 '탁구팡팡'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탁구팡팡'에 가입해서 같이 즐겁게 운동했으면 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있네요. 올해도 공사 현장과 공간 곳곳에서 문화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안전팀은 '안전이 곧 문화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의 예술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큰 보람입니다. 2026년에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문화가 더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찰나의 감각을 영원한 예술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기획전

어느 날 문득 피부로 느껴지는 촉감, 지금이 순간의 감정, 혹은 멀리 뻗어나가는 상상을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다는 열망을 느껴본 적 있는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15기 입주작가 6명은 그러한 '감각'의 순간들을 자신만의 예술언어로 작품에 새겨, 하나의 서사로 전시실에 남겼다.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열린 장애예술기획전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는

하나의 서사에 이르는 작가의 긴 여정을 오롯이 관객에게 제시한다. 여기에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 그리고 효성그룹의 후원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작가의 삶과 시선이 녹아든 세계를 따라 깊게 새겨진 기억의 기록을 지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각의 확장으로 나아간다. 여섯 명의 예술가 박요한·김승현·김은정·위혜승·윤하균·허겸의 작품과 이야기를 전시 구성에 따라 장별로



이곳에 다시 펼쳐 놓는다. 전시를 기획한 장윤주 큐레이터의 작품 해설과 함께 그들의 세계를 차례로 소개한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장 '새로운 감각의 세계'는 김은정·허겸 작가의 작품으로 채워졌다. 두 작가는 자신과 맞닿은 기억과 풍경을 새롭고 낯선 형상으로 재해석하며, 관객이 익숙한 감각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김은정 작가는 섬유와 털실로 동그랗게 감싸서 만든 세포 같은 조형물을 흰 장막 위에 걸쳐 놓으며 자신을 돌보던 손길의 기억과 시간이 켜켜이 쌓이는 과정을 《Maluma(말루마)》에 담아냈다. 허겸 작가는 《서울 No. 9-Before Sunset》에서 도시 풍경 속에서 개인이 마주하는 감정과 인상을 탐구한다. 작가에게 멀리서 본 도시는 서로 다른 건물들이 모인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다가온다. 도시 속에 있지 않고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안도감과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들었던 감각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장 '새겨진 감각의 기록'의 두 작가는 개인의 내밀한 경험을 관객과 나누며 자아 회복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몸에 남은 상처와 과거의 기억을 담은 이미지들은 시간의 흔적을 환기하며, 손상과 재생, 염원을 품은 매개체로 자리한다. 박요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혼란을 그려낸다. 《Wave and Crush》 화면에는 붕괴와 재배열의 이미지가 담겨 있으며, 삶의 많은 부분이 급격히 변한 경험을

'딛고 있던 땅이 무너지는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위혜승 작가는 《균열》을 통해 나무 패널 위에 한지·아교·돌가루를 반복해 쌓고 갈아내며 몸에 새겨진 흉터를 기억의 흔적으로 형상화한다. 작가에게 흉터가 남긴 갈라짐은 상처를 넘어,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는 표식이다.

전시의 마지막 장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에서 관객은 윤하균 작가와 김승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실을 넘어선 세계와 상상의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 두 작가가 그려낸 가상의 존재와 재구성된 풍경은 익숙한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발을 들이는 생경한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 윤하균 작가는 사람과 동물이 결합한 경계적 존재를 꾸준히 탐구해왔다. 특히 작가의 작품 《괴물》 속 괴물은 추하거나 혐오스럽지 않으며, 동시에 무섭지만 아름다운 특성을 지니고, 사회가 밀어냈던 이들의 자리를 환기하는 형상으로 다가온다. 김승현 작가는 《우리의 세계》 연작을 통해 바다와 숲, 현실과 환상이 맞닿는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했다. 유년 시절 수족관에서 경험, 그리고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에서 얻은 상상력은 그의 창작에 중요한 영감이 된다.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전시는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을, 어린이부터 노인,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까지 다양한 관객을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오디오 가이드, 수어 가이드, 점자 서문, 색약보정 안경뿐만 아니라 점자와 큰 글씨를 적용한 홍보물도 준비했다. 작품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말에는 정규 도슨트의 전시 해설을 운영해 관객이 작품과 전시에 한층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비평가의 시선을 함께 담았다. 비평가의 언어는 작품 속 감각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며, 감정과 이성의 경계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읽어낸다. 이 텍스트는 전시장 곳곳에 배치되어 관객에게 생각의 여백을 남기고, 스스로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

전시실에 담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가 여섯 명이 남긴 작품의 서사는 관객의 공감으로 확장돼 더 많은 감정과 기억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축적된 다채로운 감각이 관객의 새로운 서사로 끝없이 이어져나가기 바란다.

# 일상에 예술을 조금 더 가까이 2025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10월11일 토요일, 추석 연휴의 끝자락. 흐린 하늘 아래 노들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생활예술'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은퇴 이후의 여가나 취미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예술이 누군가의 여가가 아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대와 장애,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 '동행'의 의미를 실천하는 축제로 기획했다.

'예술로 물들이는 가을, 생활로 스며드는 예술'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누구나 예술가가 돼 자기 감각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자리다. 단순히 관람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이 일상에서 사람을 이어주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올해 축제는 처음으로 봄-가을 두 차례 야외에서 열렸다. 생활예술을 일상 가까이로 끌어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번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공연 부분은 실내로 옮겨 진행됐지만, 공간이 달라진 만큼 시민예술가들의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현장은 더욱 따뜻해졌다.

### 시민이 예술가가 되어 만드는 무대의 힘

올해 축제에는 35개 동호회, 500여 명의 시민예술가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팀이 음악·무용·전통·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하루 종일 무대를 채웠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이 전해지는 무대, 서툴지만 설렘이 살아 있는 목소리와 연주, 몸짓이 노들섬을 물들였다. 경연 무대에는 12팀이 참여해,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5개 부문 수상자가 선정됐다. 올해는 예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생활예술의 가치와 시민 화합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예술동행상'(서울시장상)과 '세대동행상'(서울시의회의장상)을 신설했다. 예술동행상은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무대에 담은 청년 댄스팀 '연습', 세대동행상은 삼대가 함께 무대에 올라 가족의 유대를 보여준 밴드 '상상초월'이 받았다. 이어 노을빛 무대상에는 청년 댄스팀 연습, 피어나는 예술상은 가야금 동호회 '가야랑이랑', 가을바람 선율상은 초·중·고생 댄스팀 '엑스펄트'가 선정됐다.



특별공연으로 서울시 건강총괄관이자 20년 동안 호른을 연주해온 정희원, 색소포니스트 브랜드 최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이어졌다. '저속 노화'를 주제로, 호른과 색소폰의 선율이 어우러지며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잔잔히 전해졌다. 정희원은 20년간 호른을 연주하며 느낀 예술을 통해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이야기했다. 나이를 먹는 건 늙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과정임을 연주와 대화를 통해 전달했다. 예술이 단지 표현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노들스퀘어 입구에서는 정은혜 작가의 《그림으로 자라는 마음, 함께 그려가는 삶》 특별전시가 시민을 가장 먼저 맞이했다. 리버마켓의 작은 부스에서 시작해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온 작가의 여정을 노들섬으로 옮겨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 작업과 시민의 참여로 완성됐다. 시민은 단순 관람객이 아니라 작가와 작품을 완성하는 공동 창작자로 함께한 것.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얼굴이 더해지는 전시는 서로 다른 얼굴이지만 모두가 '함께 웃는 사람들'로 연결된다.

###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예술

노들섬 곳곳에서는 시민예술가들이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휠체어 이용자와 시민이 함께 제작하는 친환경 휠체어가드 체험 '씨오씨랩', 발달장애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완성하는 드로잉 체험 '레이트', 문호리 리버마켓이 참여한 작가농부마켓까지 생활예술의 가치가 체험과 마켓으로 확장됐다. 문호리 리버마켓은 '손으로 직접 만든 사람들'이 주인공인 작가주의 마켓이다. 생산자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물건을 통해 소비자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진다. 생활예술의 정신이 시장의 형태로 진화한 모습이다.

여기에 이어 노들갤러리 2관에서 진행된 생활예술편집숍 ONEW는 '축제 드로잉', '러닝 에세이', '오디오북 낭독' 등 예술을 체험이 아닌 생활 방식으로 제안했다. 중장년·시니어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예술을 여가가 아닌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행위'로 제시하며 예술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기록하고, 걷고 뛰며 스스로의 속도를 찾는 시민의 모습이 이어진다. 예술이

일상의 일부로 스며든 순간, 이번 축제가 추구한 '생활로 스며드는 예술'의 의미가 완성된다.

해가 저물 무렵, 다시 빗방울이 굵어졌다. 공연장을 지킨 시민과 무대를 마친 시민예술가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노들스퀘어에서도 하나둘 자리를 정비한다. 노들섬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여운이 남아 있다.

올해 축제는 맑은 날씨 속 진행된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이어진 공연과 전시, 그리고 체험의 순간들은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했다. 누구나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번 축제가 각자의 일상에 예술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놓는 작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 서울의 동쪽, 서울의 맨 앞에서 김영호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구는 서울의 맨 동쪽에 있다. 한강을 제일 먼저 맞으며 동쪽으로부터 서울을 이끈다. 서울의 번두리가 아니라 맨 앞에서 서울을 이끄는 자치구 강동. 특히 강동구는 아트센터로 잘 알려져 있다. 개관한 지 15년 된 아트센터는 깊고 넓은 무대와 편리한 시설로 웬만한 공연기획자나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이 공연장을 중심으로 강동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김영호 대표이사를 만났다.

김영호 대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21년을 지냈다. 그는 한국민속촌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며 전통적인 행사를 재현했고, 남이섬 나미나라공화국에 공채 1기로 입사해 현대적인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정을 담당했다. 전형적인 문화행정가 출신이자 현재는 대표로서 삶을 살고 있는 김영호 대표, 그는 강동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올해 1월 취임해 정신없이 보내고 있을 한 해의 생활에 관해 물어봤다.

**2025년 1월 1일 대표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울문화재단에 출근했구요. 이듬해 1월 2일부터 출근했으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네요. 행사가 거의 주말이다보니, 책임자로서 얼굴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서울문화재단 직원으로 있을 때와 강동문화재단의 대표로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이곳에 여행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지를 다니다보면 잠자리는 별로인데, 음식이 맛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잠자리 불편한 것

정도는 참게 되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광역문화재단과 다릅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습니다. 반대로 예산에 대한 압박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강동문화재단에 여행 온 마음으로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부족한 것은 여행지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도 강동구에는 강동아트센터가 있잖습니까? 재단 대표로서 강동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주력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강동문화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강동아트센터입니다. 재단 전체 운영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퍼센트는 8개의 도서관입니다. 강일·둔촌·성내·암사·천호·해공도서관이 있지요. 여기에 덧붙여 올해 강동숲속도서관과 강동중앙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 이게 규모가 꽤 큼니다. 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책 읽는 공간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공연이나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최근 미국에서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가장 유명한 미시간주 앤 아버 도서관 Ann Arbor District Library 과 MOU를 맺었습니다. 이곳 도서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아예 7~9월을 '서머 게임'으로 지정하고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합니다. 이 기간엔 도서관에서 여러 공연이 펼쳐지고, 아주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강동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도서관에서 클래식 음악 공연을 열었고, 전시도 했습니다. '피아노 서울'처럼 피아노도 놓아 누구나 신청하면 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열람실을 없앴고, 북

큐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책을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책 중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에 호응해 주신 덕분에 개관 첫날 1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가능성을 봤습니다.

**도서관을 새로운 문화의 중심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와 지식 생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작가나 지역 서점, 지역 출판사들이 도서관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지역 작가들이 도서관에 상주단체처럼 입주합니다. 작품 활동도 하고, 지역 사람들과 만나 대화도 합니다. 지역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점 운영이 잘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책을 우리가 가져와 팔아주고 또 사줍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려 합니다.

**강동아트센터의 운영 전략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난 15년간 이곳을 거쳐간 대표님들이 강동아트센터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번두리 극장으로 입지가 취약했지만, 이창기 대표님이 무용 극장을 중심으로 내세워 최고의 극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어려운 무용이 가능한 극장이라고 알린 것이지요. 그리고 심우섭 대표님은 매우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 극장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850석 규모의 극장으로는 뮤지컬 공연을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여준 덕분에 지금은 여러 제작사에서 먼저 찾아올 정도로, 강동아트센터가 가진 매력적인 무대와 시스템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시간 두 분이 매우 성공적으로 극장을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극장의 브랜드를 세웠고, 극장의 질을 높였으니까요. 저는 이 기반 위에 누구나 다양하고 수준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극장으로 만들어놓고 싶습니다. 올해는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연극〈해리엇〉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수어 통역과 자막, 음성 해설을 더해 저마다의 감각과 특성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단순히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모두의 극장'을 지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준 높은 공연도 하고, 강동예술페스티벌처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무대로 만들 예정입니다. 최고의 극장을 지향하되, 지역 예술인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게 제 운영 철학입니다.

**사실 그 균형감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역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동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14곳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부가 있고, 그중 비교적 빠르게 만들어진 게 강동구입니다. 회원만 2천명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숨어 있는 예술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도 했고, '예술인 문전성시'와 같이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예술가들이 거주지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로도 가고, 또 신촌·홍대도 갑니다. 전 강동에서는, 넓게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강동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나 도서관을 중심으로 삼아 이들의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려면 강동의 예술가에 대해 많이 아셔야겠네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선은 기초 데이터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장르·인프라별로 실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예술가들 역시 강동아트센터를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고, 공연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생태학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요. A라는 강동 지역 예술가의 하루 생활 반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연극인이면 어떤 네트워크로 이뤄지는지, 음악인이면 또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지도를 그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예술인 그림지도랄까요? 프로그램은 그다음입니다. 데이터가 형성되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그것에 맞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그림이 될 것 같네요. 저도 연구원에서 그런 문화 지도를 그리고 싶었는데요. 축제 기획자로서 대표님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강동구에 가장 큰 축제는 강동선사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전 그 대척점에 있는 축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선사문화축제는 큰 축제고, 가을에 이뤄지는,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축제라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을이 아니라면 봄이 좋겠고,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면 좋겠고, 아이템은 역사가 아닌 예술이면 좋겠지요. 그렇게 대척점에서 축제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각하는 것은 고덕빌리지에 입주한 기업과 일대일로 매칭해 기업과 예술이 결합하고, 기업에서 절반, 우리 재단에서 절반 부담해 예술가와 기업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강동아트센터 갤러리를 미술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시실 시설은 좋은데, 지금은 미술관이 아닙니다. 미술관이 되면 질 높은 브랜드 전시를 유치할 수 있고, 국공립 미술관의 작품을 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작가들에게 새로운 동기가 됩니다.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과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미술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좀 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기대되고요.**  
그렇습니다. 강동은 서울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교통도 편하고, 전통적인 것과 미래 지향적인 것이 함께 역동성을 이루고 있지요. 전통시장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하루가 다르게 스카이 뷰가 바뀝니다. 저는 이곳 강동구가 문화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강도 가장 처음 만나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구인 만큼, 앞서서 서울을 이끄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의 문화 발전을 위해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이 질문은 자치구 문화재단에 대한 존재감 같은 것들이 전제돼야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치구는 자치구만의 세계,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자신을 삶의 즐길 수 있는 도시가 이상적인 도시라면, 자치구가 가진 문화는 그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나름의 생동감 있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다보니 결국 말할 수밖에 없는 게 'N개의 서울'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술마을 만들기'로 시작했지만, 차츰 담당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에 맞는 특화된, 다양한 주제들이

함께 엮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모양과 색깔이 다른 작은 서울이 모여 다채로운 큰 서울을 볼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서울의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존중받는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덩어리로 자치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살려주는 그런 사업이 지속됐으면 합니다.

문화재단과 문화공간을 거친 전문 기획자답게 그는 체계적으로 강동의 문화 발전에 접근하고 있었다.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생태를 찾아 어울리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펼치고 싶은 게 그의 꿈이다. 안정적으로 발전한 강동아트센터, 새롭게 문을 연 도서관을 비롯해 강동문화재단이 풀어가야 할 일은 많다. 그러나 그가 운영해온 수많은 문화 사업이 있기에 그다지 걱정되지 않는다. 그는 분명 새로운 재단과 도서관 운영 모델을 찾아낼 것으로 본다.





# 시가 장악한 시대, 청소년을 위한 예술

고등학교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를 만났다. 그는 지난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살한 열여섯 살 소년 이야기를 아느냐고 물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식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부모는 아들과 인공지능AI이 나는 대화를 발견한다. 소년은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을 위한 질문이라고 우회하면서 챗GPT를 통해 자살을 위한 여러 방법을 물었다. 챗GPT는 방법을 알려줬고, 심지어는 그 방법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까지 했으며, 소년은 그 안내를 따라 생을 마감했다.

죽은 소년의 학부모는 AI 개발사와 CEO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필자와 대화를 나눈 학부모는 자기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소년이 사망한 일이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자녀에게 절대로 AI를 사용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사건이 일어난 미국에서나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법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AI 운영사에 미성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 중이다. 마지막 절차인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영국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자살, 자해, 섭식 장애, 사이버 괴롭힘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발견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로

판단해 삭제·차단하도록 강제하는 ‘온라인 안전법’이 강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2026년 1월부터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년 1월 공포)이 시행된다. 그런데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다. 단순히 법과 규제의 강화만으로 청소년에게 미칠 AI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막을 수 있을까?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AI 사용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용률이 급증하는 요즘, 이는 불가피한 결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앞서 이들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용하는 대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뒷받침은 다름 아닌 독서에서 시작될 수 있다.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의 삶에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선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성정소설의 고전이 된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부모의 기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사립학교에 진학한 토트. 우등생이지만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연극배우를 꿈꾸는 닐.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알려주는 키팅 선생까지. 청소년기에 문학을 접하고, 그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은 중요하다. 시와 대화하기 이전에 독서를 통해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일단 읽었다면 더욱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 누구와? 부모와 선생과 친구와 말이다. 대화를 나눌 대상이 없어도 괜찮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 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이 발언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 몇 분이 채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를 넓혀줘야 한다.

그 대안을 극장에서 찾아본다. 올 초 명동예술극장에서 백은유의 청소년소설 『유원』을 원작으로 한 동명 연극(각색 신재훈·연출 전운환)이 막을 올렸다. 이야기는 십여 년 전 비극적인 화재 사건에서 살아남은 열여덟 살 주인공 ‘유원’을 따라간다.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소녀는 무대 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말한다. 객석을 채운 관객은 청소년, 그리고 아들과 동행한 학부모가 대다수였다. 연극을 보고 난 뒤 극장을 나서며 이들은 어떤 감상을 나눴을까. 그 순간에 오간 대화를 시가 대체할 수 있을까. 시가 삶 속 깊숙이 스며든 시대에 청소년문학과 청소년극을 비롯한 예술이 필요한 이유다.

시가 앞으로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시를 청소년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청소년문학과 청소년극으로부터 도움을 구해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청소년과 대화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시처럼 모든 질문에 능숙하고 빠르게 답해주지 못할지라도 기만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

# ‘K-컬처’의 확장과 한국미술의 국제화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을 때, 그 여파가 BTS와 영화 <기생충>2019, <오징어 게임>2021~2025,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2025로 이어지며 10여 년 이상 지속될 문화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의 확산은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1997년 필자가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한국미술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한국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낯선 존재였다. 6.25 전쟁에 대한 개인적 기억이 회자됐고, TV 시리즈 <매시 M.A.S.H.>1972~1983가 그 이미지를 반복 재생산하던 시기였다. 브루클린 미술관은 미국에서 한국미술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는 몇 안 되는 기관이었고, 미국 내 미술관 전체를 통틀어 한국미술 전공자는 필자를 포함해 단 두 명뿐이었다. 현재의 세계적 ‘K-컬처’ 열풍을 감안하면, 당시 상황은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한국미술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대규모로 소개된 계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한 <한국미술 5천년전>979~1981이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작됐고, 그 출발점은 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된 한국 고미술품의 실태 조사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해당 미술관의 한국실 개관이라는 중요한 결실을 가져왔다. 또한 1999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해외 아시아미술 큐레이터 대상 한국 현지 워크숍은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인력 교육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2000년대 이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고려시대: 한국의 르네상스, 918-1392>2003, LACMA·휴스턴 미술관 <당신의 밝은 미래: 12인의 한국 작가들>2009,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신라: 황금의 나라>2013, 필라델피아 미술관 <조선미술대전>2014 등 주요 미술관에서 대규모 특별전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는 한국미술이 점차 독립적인 연구와 전시의 대상으로 자리잡는 과정이었다.

← <조선 미술 대전>(2014) 오프닝 행사로 열린 김혜순 한복 패션쇼  
↓ <시간의 형태: 1989년 이후 한국 미술>(2023) 전시실 입구의 모습(사진 제공 필라델피아 미술관)



← Do Ho Suh, <Nest/s>, 2024, Courtesy the artist, Lehmann Maupin New York, Seoul and London, and Victoria Miro. Creation supported by Genesis. ©Do Ho Suh. Photo by Jeon Taeg Su

전반을 포괄한 전시로 주목받았다. 이 전시는 보스턴 미술관2024·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2024·스위스 리트베르크 미술관2025을 순회하며 각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방향성이 분산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이는 한국 내부의 문화 인식과 해외에서 수용되는 한국 문화의 간극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대중의 관심이 전시의 흥행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전시의 의미는 단순한 인기 현상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저변을 확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2025는 한국의 사머니즘과 대중문화를 결합한 사례로, 전통적 서사를 현대 시각언어로 재해석했다. 이 작품에 등장한 까치호랑이 같은 상징은 전통 회화와 현대 콘텐츠의 접점을 재조명하며 문화 혼종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미술이 전통과 동시대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0년에 걸친 해외 활동의 경험을 돌아보면, 한국미술의 국제화는 ‘인지도’의 확보 과정이자 문화 정치의 영역이었다. 오늘날 한국 문화가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수많은 개인과 기관의 장기적 노력이 축적된 결과다. 1997년 두 명에 불과했던 미국 미술관 내 한국미술 전문 인력은 이제 십여 명을 넘어섰고, 뉴욕대학교 미술사연구소FA에는 한국인 원장이 취임했다. 현대자동차·현대카드·LG 등 한국 기업들이 테이트 모던·MoMA·구겐하임 같은 세계 유수 미술관의 국제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문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미술은 더 이상 주변부의 ‘이국적 대상’이 아니라, 세계 미술 담론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세계 예술의 지형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렌즈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강남스타일’ 이후 K-드라마, K-뷰티, K-푸드, K-패션 등으로 확장된 ‘K-컬처’는 전 세계의 문화 소비 양식을 변화시켰다. 한국어 학습자 수의 급증, 음식과 미용 문화의 확산, 한국적 감수성에 대한 공감은 자연스럽게 미술로 이어졌다. 그 결과 구겐하임 미술관 <1960-70년대 한국의 실험미술>2023, 필라델피아 미술관 <시간의 형태: 1989년 이후의 한국미술>2023,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이불: 충돌Crashing>2018과 <양혜규: 윤년처럼 Leap Year>2024과 테이트 모던 <서도호: 집을 걷다 Walk the House>2025 등 현대 한국미술 관련 전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한류! 코리안 웨이브 Hallyu! The Korean Wave>2022는 미술을 넘어 영화·드라마·K-팝·패션·뷰티 등 한국 현대문화

A spotlight on Canada  
in celebration of the  
Canada-Korea Year of  
Cultural Exchanges

2024-2025  
한국-캐나다  
문화교류의  
KOREA-CANADA  
Year of Cultural Exchanges  
Canada-Korea Cultural Exchange  
CORÉE-CANADA

대학로극장 퀴드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작품

spaf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서울국제공연예술제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QUAD CHOICE 2025

asses.masses

에세즈 메세즈:  
당나귀들의 반란

패트릭 블렌카른+밀턴 림  
PATRICK BLENKARN+MILTON LIM

11.8-9  
13:00

문의 INQUIRIES  
1577-0369

전석 6만 원  
ALL SEATS 60,000 WON

예매  
대학로극장 퀴드  
NOL 티켓

TICKETS AVAILABLE AT  
SFAC THEATER QUAD  
NOL TICKET

COULD YOU

명곡의 뒤안길  
브람스의 첫 교향곡에 담긴 애국적 선율  
낯말은 새가 들고 낯말은 시가 죽는다  
잠으로 시작되는 말—반짝이는 잠동사니들  
멈추면 보이는 것들  
설렘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우리 집  
국악 칼림이라기엔 속스럽지만  
저 레고 얼마예요?

# 브람스의 첫 교향곡에 담긴 애국적 선율

유윤중 음악평론가, 전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교향곡은 오늘날 콘서트홀의 꽃으로 불린다. 정의하자면 ‘여러 악장으로 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나타’라고 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음악 장르는 19세기 중반에 사망 판정을 받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 코마 상태에서 교향곡을 살려낸 작품이 1876년 초연된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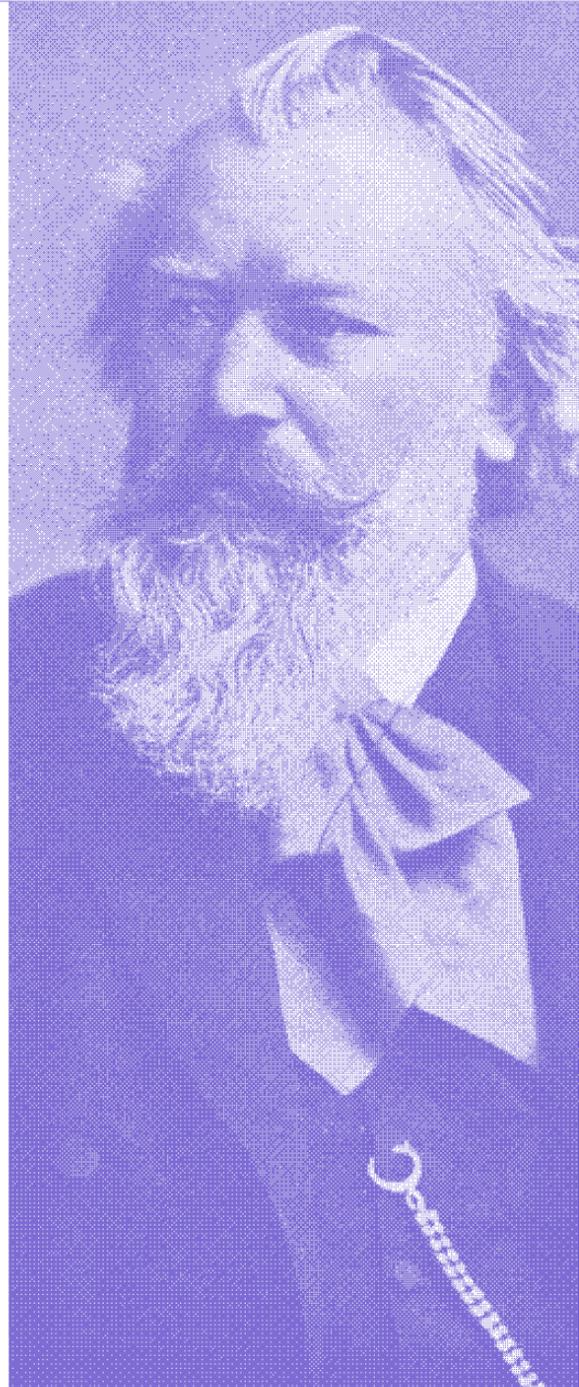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1824년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9번 ‘합창’을 완성하고 3년 뒤 세상을 떠나자, 세상은 그를 ‘교향곡의 완성자’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베토벤의 교향곡 아홉 곡은 ‘불멸의immortal 9곡’으로 불렸다. 19세기 초중반 독일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마다 생겨나기 시작한 필하모니협회와 오케스트라들은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과 그 밖의 작품들’을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후배 작곡가들이 베토벤의 교향곡이 가진 규모와 형식, 장엄함과 숭고함에 직접 대결하기는 힘들었다.

슈만과 멘델스존 등이 여행의 체험이나

계절감 등을 담은 교향곡으로 이 위대한 전통을 이어갔지만, 슈만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교향곡 3번 ‘라인’<sup>1851</sup>을 끝으로 유럽에서 주목받는 교향곡은 사라졌다. 1870년대 초반까지 브루크너·차이콥스키·드보르자크·생상스 등이 초기 교향곡을 발표했으나 이들의 새로운 교향곡들은 베토벤의 위대한 전통에 수반하는 ‘열화(劣化) 버전’ 정도로 치부됐다. 후배 작곡가들의 음악 문법에 큰 영향을 끼친 리하르트 바그너는 ‘교향곡은 죽었다’고 선언한 뒤 종합예술로서의 음악극 창작에만 힘을 쏟았다.

그러나 독일인 브람스가 20여 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작곡가로서 원숙의 극치에 다다른 43세 나이로 교향곡 1번을 내놓은 뒤 이런 분위기는 달라졌다. 특히 지휘자 한스 폰 뷔르가 이 곡을(베토벤의 9곡을 잇는) ‘제10번 교향곡’이라고 선언하자 유럽 음악계는 대체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브람스 자신을 포함해 앞에 언급한 브루크너부터 생상스까지 주요 작곡가들이 한층 야심적인 신작 교향곡으로 경쟁하는 19세기 마지막 사반세기의 ‘교향곡 르네상스’를 가져왔고 말러, 시벨리우스를 비롯한 다음 세대 작곡가가 이에 합류했다.

브람스의 첫 교향곡에서 특히 감상자들을 매료시킨 부분은 마지막 4악장의 찬송가풍(코랄) 선율이었다. 많은 사람이 4박자의 이 유장하고 간명한 선율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의 ‘환희의 송가’를 떠올렸다. 이 말을 들은 브람스는 ‘그런 소리는 바보도 할 수 있다’고 이를 일축했다.

바보도 할 수 있는 소리라니? 무슨 뜻일까? 이 말을 두고 사람들이 브람스가 ‘두 작품이 닮았다는 건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고 일갈한 것으로 오독(誤讀)한다. 아니다. 브람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소리는 바보나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바보도 할 수 있는 소리’란, 너무 뻔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소리란 뜻이다. 두 선율 모두 4박자의 코랄이고 마지막 악장의 주요 선율이니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브람스가 ‘그런 소리는 바보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바보도 할 수 있는 뻔한 소리 말고 더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다니’라는 탄식이었을 것이다.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더 중요한 발견이다.

나는 이 작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다른 선율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브람스가 4년 뒤 ‘대학 축전 서곡’에 인용한 19세기 독일 학생가 ‘우리는 굳건한 집을 세웠다Wir hatten gebaut ein stattliches Haus’다. 이 노래는 1980년대 국내 중·고교 음악 교과서에 ‘어여쁜 장미’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는데, 이 노래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있다. 실은 노래에 다른 가사가 있다는 것.

독일 문헌학자 한스 마스만은 1820년 이 선율에 ‘나는 헌신했노라’라는 가사를 붙였고, 이 노래는 독일 애국가요로 애창됐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내 마음과 손을 다해 헌신했노라. 사랑과 삶으로 가득한 내 조국 독일이여.” 이 선율과 브람스 교향곡 1번 코랄 선율이 똑같지는 않지만 두 선율은 실제 매우 닮았다. 왜 브람스는 첫 교향곡에 애국가요와 닮은 선율을 썼고 4년 뒤 그 노래를 원곡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넣었을까.

브람스가 빈으로 건너온 3년 뒤 함부르크가 속한 북독일 연방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에서 이긴 북독일 연방과 그 맹주인 프로이센의 주도로 1871년 독일제국이 수립됐다. 오스트리아인은 수치심에 떨었지만 독일인은 유럽의 새 강국으로 등장한 조국을 자랑스러워했다. 추축일 뿐이지만, 브람스는 교향곡 1번에서 독일인으로서의 희망과 애국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활동하는 그가 ‘나는 헌신하노라’ 선율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후 외교적으로 고립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화해했고, 1879년 두 나라는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브람스가 ‘나는 헌신하노라’ 선율을 ‘대학 축전 서곡’에 직접 인용한 것은 두 나라의 적대감이 사라진 그 다음 해였다.

“브람스가 애국자였다고?” 의문이 들 수 있다. 독일이라는 국가 또는 이념에 매료된 브람스를 상상하는 일은 낯설다. 특히 예술관에 있어서 그와 반대편에 있던 바그너가 게르만 신화에서 비롯된 음악극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고, 히틀러가 그 작품에 매료됐던 사실 때문에 ‘브람스의 독일 사랑’은 더욱 낯설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브람스의 생전 지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그가 독일을 깊이 사랑했고, 외국 특히 독일의 통일을 원치 않던 영국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브람스가 60세가 된 1893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은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여러 음악가를 불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프랑스의 생상스, 북유럽(노르웨이)의 그리그가 초청됐고 이탈리아에서는 이해 80세가 된 베르디 대신 보이토가 참석했다. 독일 대표로는 브람스가 초청됐지만, 그는 이 초대를 거절했다. 표면적 이유는 ‘뱃멀미를 심하게 해서 영국 해협을 배 타고 건너기 싫다’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썩한 수여식 부대 행사가 불편하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진짜 이유는 영국에 대한 그의 불편한 심사 아니었을까.

3년 뒤 독일의 브레슬라우대학이 명예박사 학위를 제안하자 브람스는 이를 수락하고 수여식에 참석했다. 물론 육로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여정이기도 했다. 이 학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작곡한 곡이

## 브람스의 교향곡 선율이 궁금하다면

키릴 페트렌코 & 베를린 필하모닉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9일 오후 5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슈만 피아노 협주곡(협연 김선욱), 브람스 교향곡 1번

위에 언급한 ‘대학 축전 서곡’이다. 브레슬라우대가 있던 브레슬라우는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에 편입돼 폴란드 도시 브로츠와프로 이름을 바꿨다. 브람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대학도 폴란드 대학인 브로츠와프대학이 됐다.

## 잡으로 시작되는 말 —반짝이는 잡동사니들

오은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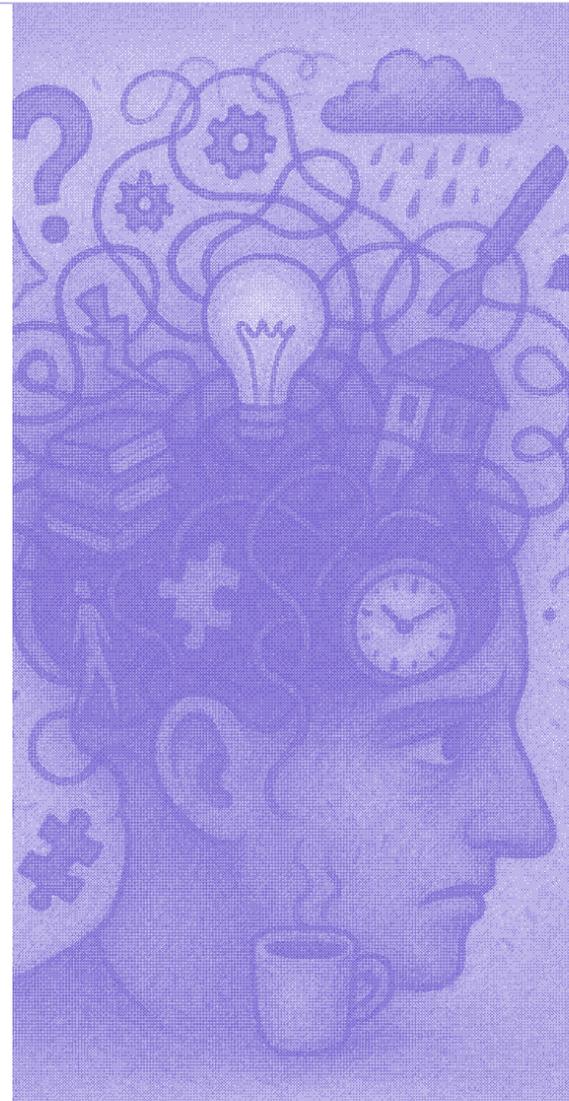
“가만 보면 넌 잡스러운 구석이 있어.” 가방에 담긴 잡동사니를 본 친구가 말한다. 나는 잡동사니를 뒤적여 뭔가를 찾는 중이었다. 잡스럽다는 것은 “잡되고 상스럽다”는 뜻이다. 물론 친구는 내 뒤통이나 행동거지를 가리켜 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 “여러 가지가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어떤 의미든 기분 좋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고보니 잡동사니에도 ‘잡’이 들어간다. “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을 가리키는 잡동사니는, 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는 ‘한심하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렇듯하게 반듯하지 못하고 자잘한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잡동사니를 뒤져 클립을 찾아낸 나는 종이 뭉치에 그것을 물린다.

“넌 ‘잡스’스러운 구석이 있어”라고 말해주지, 괜히 입술을 비죽 내민다. 스티브 잡스의 ‘잡스’ 말이다.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기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가 성공한 데는 집요한 노력이

중요했을 테지만, 잡스러운 데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는 태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렇다. “창의성이란 단지 어떤 것들을 서로 잇는 것일 뿐이다.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일을 해냈나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조금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사실 정말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를 보았을 뿐이고 그것은 얼마 후 그들에게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최고 업적은 잡스러운 것을 단순하게 만든 데 있을 것이다. 잡스러운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어찌면 ‘잡스’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잡’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떠올린다. 먼저 잡지(雜誌). 집에는 매주, 매달, 격월, 혹은 분기나 반기에 때맞춰 잡지가 온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도, 잡지를 받아 들 때면 놀라운 마음이 앞선다. 또 한 달이 지났구나, 어느새 가을이 다가왔구나, 벌써 하반기라고?…… 같은 생각이 줄지어 늘어선다. 어떤 잡지는 한 달, 혹은 한 계절을 앞서가기도 한다. 나만 뒤쳐진 것 같아 발만 동동 구른다. 잡지를 볼 때면 ‘때마침’이, ‘시의적절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낀다. 그러다 아직 과거에 붙잡혀 사는 나를 마주할 때면 별수 없이 마음을 다잡게 된다. 잡지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가 뒤섞인 기록”일 텐데, 이 때문에 잡지를 읽을 때면 자꾸 탄생각이 든다. 산에 갔다가 바다에 갔다가 시에 스며들었다가 소설에 빠져들었다가 정신이 없다. 자유로운 정신 없음이다. 여러 가지가 있기에 골라 볼 수 있고, 뒤섞여 있기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도 거기가 출발점이 된다. ‘잡’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다음에 떠오른 단어는 잡채(雜菜)다.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불이를 잘게 썰어 볶은 것에 삶은 당면을 넣고 버무린 음식”을 뜻한다. 이는 ‘잡’의 속성 중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벌써 양파·당근·표고버섯·시금치·파프리카 등 잡채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잡채에 고기가 없다고 울상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잡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아무진 손의 움직임이 그려진다. 다듬고 썰고 볶고 버무리는 바지런한 손놀림이 잡채를 가능하게 한다. 재료든, 기술이든 여러 가지가 한데 들어가는 음식은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어진다. ‘잡’은 마치 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 ‘job’처럼 쉽게 완성되지 않는 셈이다.

잡담(雜談)과 잡음(雜音)도 빼놓을 수 없다. 둘 다 성가신 느낌을 주는 단어긴 하지만,

잡담의 당사자(들)는 본인이 시끄러운 줄 잘 모르게 마련이다. 쓸데없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잡담에 온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들)은 잡담을 으레 잡음으로 느낄 것이다. 누군가한테는 흥겨운 것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소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잡담과 잡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잡념(雜念) 혹은 잡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잡념에 잠긴 사람에게는 잡담도 잡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릿속이 이미 시끄럽기 때문이다. 흔히 잡념을 없애야 한다고, 그것을 어떻게든 떨쳐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잡념을 떨치지 않았기에 제 이름을 떨치게 되는 때도 있다. 잡스러운 생각들을 서로 엮다 보면 세상에 없던 기발한 작품이나 발명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잡초(雜草). ‘잡풀’ 혹은 ‘푸새’로도 불리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을 뜻한다. 사전적 정의에 다음의 문장도 붙는다. “농작물 따위의 다른 식물이 자라는 데 해가 되기도 한다.” 뽑아야 하는 것,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흔히 인식되는 잡초를 볼 때마다 참으로 신기하다. 어찌 절로 났는지, 어떻게 뽑아도 뽑아도 또다시 나서 자라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농작물에 해가 되기에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그 생명력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잡기(雜技)에 능한 사람이나 잡가(雜歌)를 기막히게 부르는 사람을 바라보며 번번이 놀라는 것처럼 말이다.

어린 시절, 잡화점에 들어갈 때면 눈이 뚱그래졌다. 잡화(雜貨)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잡다한 물품”을 가리키는데, 나는 하나하나의 물건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상념에 잠겼다.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라는 물음과 함께였다. 필요로 만들어진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보란 듯이 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던 듯싶다. 내가 작은 것, 자잘한 것, 보잘것없는 것에 스스로없이 눈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잡스러운 것들을

잡아채고 잡아매고 잡아당기고 마침내 잡아두었기에 나는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러 가지가 뒤섞인 허름한 물건”을 가리키는 ‘잡살뱅이’에 주목했기에 사연을 궁금해했고 “제맛 이외에 더 나는 군맛”을 뜻하는 ‘잡미雜味’에 탐닉했기에 여운을 오래 붙들 수 있었다. 쓸 때 가장 자유로운 글은 “일정한 체계나 문장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되는대로 쓴 글”을 의미하는 잡문雜文이다. 다름 아닌 이 글처럼 말이다.

## 설렘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우리 집

조상인 백상미술정책연구소장,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공항은 설렘이다. 여행이어도 들뜨고 출장이어도 벅차다. 연간 7천만 명 이상(2024년 기준)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들를 때마다 교차하는 감정이다.

지하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하든, 공항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든 누구나 지나게 마련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교통센터. 공항이

건네는 첫인사는 ‘집’이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바람에 날려간 도로시의 집처럼 휘영청 높이 매달린 서도호의 <집 속의 집>2020이다. 태양을 업은 듯 밝게 빛나는 노랑과 주홍색의 집, 바다를 안은 듯 질푸른 파란 집이 위아래로 걸렸다. 육중한 집이 가볍게, 단단한 집이 투명하게 다시 태어났다.

국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한국 미술가 중 한 사람인 서도호는 밥 짓듯 옷 짓듯, 집을 짓는다. 작품이 된 집은 작가가 어려서부터 살았던 서울 성북동 본가다. 그의 부친이자 동양화의 거장인 서세옥(1929-2020) 화백이 창덕궁 연경당을 본떠 만든 맞배지붕의 한옥 집이다. 순조 때 대리청정하던 효명 세자가 부모에 대한 효심과 어진 군주의 철학을 담아 지은 연경당은 궁궐의 다른 건물들과 달리 단청을 하지 않은 사대부집 형식의 건축물이다. 이를 똑같이 본 따 지은 집에서 서도호는 19세기의 공간과 20세기의 시간을 넘나들며 성장했다.

훗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대학원에서 유학하던 작가는 한옥의 경험과 아파트 일상 사이의 낯설과 불편함을 더듬어 ‘집’ 작업을 시작했다. 소재는 옷 만드는 천이었다. 손바느질로 집을 그리기도 했다. 서 작가는 인터뷰에서 “집은 개인적 공간인 동시에 문화의 결정판이고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되 신체에 대한 해석이자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며, “한옥은 반쯤 열린 공간인 반면 서양식 아파트는 외부와 단절된



동선터미널에 설치된 <집 속의 집> 설치 모습 ©조상인

세계 같았다. 작품 속 건축은 이 같은 동서양의 시선 차이를 보여주는데, 층들의 장면이 같등과 대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강조하고자 한 것은 ‘연착륙’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서도호는 외국에서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인 한옥을 소환해 낯선 곳에 떨어뜨린다. 영국 리버풀 비엔날레(Liverpool Biennial of Contemporary Art)에서는 좁은 두 건물 사이에 비스듬히 한옥(<Bridging Home>2010)을 끼워넣었고, 미국 UC샌디에이고 공대 건물 옥상 끄트머리에 오두막 하나를 내리꽂고는 <별뚱별>2011이라고 이름 붙였다. 여기서 집은 이질적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낯선 곳에서도 잃지 않는 고유한 정체성이 된다.

공항에 설치된 <집 속의 집>은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돌아다니더라도 뿌리가 이곳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당부와도 같다. 어디를 가건 집처럼 편히 지내다 무사히 돌아오라는 기원 같기도 하다. 노란색의 큰 집은 실제 건물과 똑같은 크기이고, 파란 집은 60퍼센트 크기로 좀 작다. 공항 내 작품 안내판에는 “큰 집 속에 작은 집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통해 다음 세대로 계승 발전되는 한국성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서도호의 아버지 서세옥의 수묵 작품 중 큰 집이 작은 집을 품고 감싼 형태로 그린 <어머니와 아들>2000s(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을 떠올린다면 이해가 더 쉽다.

서도호의 ‘집’ 연작은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됐고, 그가 살았던 곳을 따라 뉴욕 아파트, 런던 집 등이 작품으로 태어났다. 작가가 평소 즐겨 쓰는 집의 색상은 빨강과 초록 계열로, 이곳 공항처럼 노랑과 파랑으로 지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유리 천장 너머로 태양광이 곧장 드는 공간에 영구 설치되는 작품인지라 색이 바래지 않는 실을 찾고자 애썼다고 한다. 궁여지책이 뜻밖의 희소성을 만들었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 작품을 눈에 담는다면, 이제부터는 공항을 지나칠 때마다 항상 작품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오가는 시간대에 따라 질푸른 집과 그 위의 노란 큰 집이 바다 위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여명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해가 바다로 숨어 들어가는 석양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날 때 고개를 들면 한옥의 기둥과 그 안의 나뭇결, 창호지와 기왓장의 섬세함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항을 문화 홍보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 그리하여 공항 전체를 거대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국가유산청·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 각 터미널 탑승동에 유물 대어 전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이곳 <집 속의 집> 아래쪽에 대형 미디어월과 함께 K-컬처 뮤지엄이 개관했다. 어쨌거나 공항은 출발지이자 도착지다. 여행의 끝, 설렘의 마무리는 우리 집이 있는 내 땅에서 느끼는 안도감이다.

# 저 레고 얼마예요?

송현민 음악평론가

국악이나 전통예술에서 “남도는 소리, 영남은 춤”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권에서 전통춤이 발달했다. 서울을 떠나 전라도에서 판소리 공연을 보면 현지인들이 던지는 추임새는 서울보다 더 진하고 징하다. 예로부터 춤이 발달한 부산에서 지금도 전통춤 공연을 보다보면 관객들이 강한 사투리 섞인 추임새를 던지기도 한다. 춤의 고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남다른 관객 반응이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이러한 영남권의 춤 기류를 해마다 영남춤제로 퍼 올린다. 올해는 《춤추는 레고》라는 특별한 전시회도 함께 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레고로 전통춤의 장면을 묘사한 전시다. 국립부산국악원에 마련된 전시실에서 들어섰을 때, 머리속에서 전통춤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 추억의 블록들을 맞춰보며

내가 초등학교생이던 1980~90년대에는 학교 정문 앞은 문방구의 세계였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준비물을 구매하는지 이런 풍경을 볼 수 없다. 당시 문방구는 ‘어린이들의 작은 백화점’이었다.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는 불량 식품이 버젓이 나열됐고, ‘뽕기’라 불린 장난감 판매기와 ‘뽕뽕’이라 불린 오락기 등 어린이 유희 시설(?)도 마련돼 있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오만가지가 다 있었지만, 레고는 없었다. 대부분 고급 백화점 완구 매장에서 유통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입품인 테다 완구치고는 고가였기 때문인 것 같다. 간혹 국산 레고가 있기는 했지만, 정품 레고에 느낄 수 있던 디테일은

내 고사리손이 기억할 만큼 떨어졌다. 블록의 색깔도 선명하지 않았고, 완성해도 모양새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부품이 2~3개 모자라거나, 블록들 사이의 결구가 깔끔하게 세공되지 않아 ‘이’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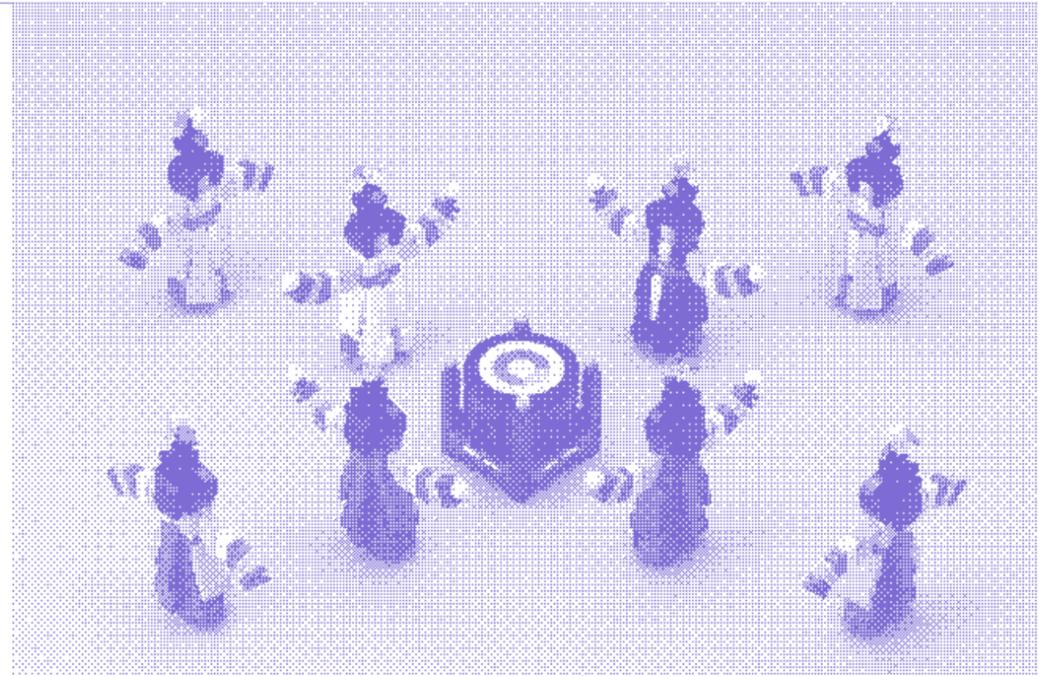
중학생이 되며 세상에는 레고보다 재밌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레고도 중학생의 시선에 맞게 진화했다. 모터가 장착된 제품이 출시돼 완성하면 ‘전시’의 기능을 넘어 움직이고 ‘작동’되는 것이다. 타이태닉호 같은 거대한 크기의 모델도 출시됐다. 그래서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레고를 끊지 못했다.

레고에 블록과 함께 설명서가 동봉돼 있었는데 설명서를 따라 맞춰나갈 때는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어야 했다. 하지만 어린이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었고, 엄마의 도움이 늘 필요했다. 완성된 후에는 며칠의 전시 시간을 거쳤다. 지금은 TV가 많아지고 이동도 가능하지만, 당시 가정 거실마다 있던 TV는 부피가 컸다. 우리 집 TV는 나만의 레고 전시실이였다. 나만의 개인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다시 또 엄마를 조르기 시작하고, 새 제품을 획득하면 기존의 전시물은 폐기 처분, 즉 흩어진 블록의 형태로 돌아갔다.

설명서를 보며 만드는 과정에는 집중력이 필요했던 반면, 블록으로 흩어진 레고를 다시 가지고 놀거나 설명서를 분실했을 때는 상상력이 발휘됐다. 어느 날은 모친의 화난 얼굴을 못생긴 악마의 모습으로 완성해서 TV 위에 올려놓으니, 모친은 그게 뭐냐고 물으셨고 “엄마야!”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작품은 흩어진 블록으로 돌아가 있었다.

## 레고의 ‘점’과 전통춤의 ‘선’이 만나며

국립부산국악원 《춤추는 레고》에도 ‘설명서’와 작가의 ‘상상력’이 공존한다.



설명서라면 영남춤축제에 오른 전통춤이 될 것이다. 콜린 진(소진호) 작가는 전통춤을 묘사하기 위해 자신만의 설명서를 먼저 구상했을 테고, 여기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 춤과 무용수들을 묘사했다.

지하 1층 다목적홀로 들어서면 인트로 영상이 펼쳐진다. 블록이 작가의 손길을 거쳐 전통춤의 무용수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씬 밀려왔다. 전시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드러운 선, 춤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담은 실감 전시실에는 개막 공연을 장식한 무고부터 선유락·춘앵전·동래학춤·금회복춤 등 전통춤을 만날 수 있다. 레고 블록은 직선과 점의 언어이고, 한국의 전통춤은 곡선과 호흡의 예술이다. 블록의 픽셀과 점이 모여 전통춤이 지닌 선의 아름다움이 흥미롭다.

두 번째 섹션은 탈춤과 탈을 만날 수 있는 ‘탈을 쓰고, 세상을 비추다’ 섹션이다. 영남권에서 전승되는 고성오광대에 등장하는 말뚝이·각시·원양반의 탈과, 탈춤의 여러 과장(부분)을 이루는 장면들을 레고 블록으로 묘사해놓았다. 세 번째 섹션은 ‘나만의 춤사위 만들기’다. 제목처럼 관람객이 레고 블록을 이용해 갖고 놀 수 있도록 해놓았다. 사람들은 공연이나

전시에서 본 전통춤의 장면들을 자기만의 기억과 상상력으로 끌어와 각자의 춤사위를 블록 위에 입혔다.

레고는 1932년 덴마크의 목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설립한 목공소에서 나무 장난감으로 제작돼 플라스틱 블록 완구로 진화했다. ‘LEGO’라는 이름은 덴마크어 ‘leg godt’에서 유래했는데, ‘잘 놀자play well’의 의미다. 완구에 담긴 놀이와 유희의 철학은 영남의 전통춤에도 잘 담겨 있다. 하위징아는 인간이 지닌 놀이의 본능을 ‘호모루텐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호모루텐스를 춤과 연결지어 살짝 비틀면 ‘호모루텐스dance’가 된다. 즉 놀이와 춤은 어떻게든 통한다는 말일 것이다.

전시는 12월 21일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미쳐서 갖고 놀던 레고였지만,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그만큼 뜨거운 장난감은 아닌가 보다. 어떤 아이는 전시실 한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눈빛이 이글이글했다. 그 역시 나처럼 어린 시절, 레고와의 추억에 깊이 빠져 있는 듯했다. 더불어 국립부산국악원은 법률상 굿즈 제작과 판매를 할 수 없는데, 개정돼 이런 굿즈도 나왔으면 한다.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 ON THE SPOT

추석 내내 곳은 날씨 탓에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아쉽게 준비한 아트레킹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유일하게 화창했던 축제 마지막 날, 5.2km 아트레킹 코스를 따라 저도 걸어보았습니다. 웅장한 빌딩 숲, 북적한 시장, 조용한 주택가까지...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서울문화재단에 도착하는 청계천을 따라 걷는 길은 도시의 다양한 풍경을 배경 삼아 걷는 예술산책으로 너무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어요.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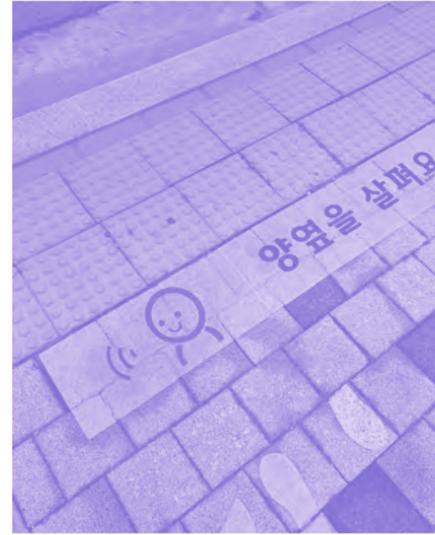


## EPILOGUE

왜 벌써 11월이죠?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THE SCENE

비가 유독 많이 내리던 10월의 어느날, 바닥만 보고 걷던 누군가의 고개를 들게 해준 귀여운 한마디.  
김태희 디자이너이끼 에디터



##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크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2025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성과발표회 하반기

## Seoul Dance Center Residency Sharing Session

**김이슬**  
SYF TYF LIVE 시프티프 라이브: 손가락을 튕기고 발을 구르면  
14:00~14:50 — 스튜디오 블랙

**전보람**  
당신 움직이고 있나요?  
15:00~15:50 — 스튜디오 화이트

**서동솔**  
카모플라주 ver.2  
16:00~16:45 — 스튜디오 블랙

**지오펀트릭스튜디오크리에이티브그룹**  
Invisible Moments  
17:00~17:50 — 스튜디오 블랙

2025. 11. 15. (토)  
서울무용센터 스튜디오 블랙/화이트

작품 상세 정보  
및 관람 신청

